『종교학연구』 제 37집
한국종교학연구회, 2019. pp. 39-91.

강원도 인제지역 마을에서 모시는 산신(山神)의 성격

김 도 현*

Ⅰ. 머리말
Ⅱ. 인제지역 마을 제의(祭儀) 현황
1. 모시는 신령(神靈)
2. 제일(祭日)의 전승과 변화
3. 제수(祭需)
4. 기타
Ⅲ. 인제지역 마을제의에서 산신을 모신 유형
1. 산신을 주신(主神)으로 모시는 유형
2. 산신을 주신으로 모시고, 서낭을 하위 신령으로 모신 유형
3. 산신과 서낭을 대등하게 모시는 유형
4. 산신을 상당신 또는 터주로 모시는 유형
5. 기타
Ⅳ. 인제지역 마을제의에서 모시는 산신의 성격
1. 제의 구조
2. 마을에서 모시는 산신의 성격
Ⅴ. 맺음말

*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Ⅰ. 머리말

인제군은 강원도의 중동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영서 북부지역으로 우리나라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다. 인제읍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서화면과 북면, 남쪽에 남면과 상남면, 남동쪽에 기린면이 위치해 있다.

본래 고구려의 저족현(猪足縣)[오사회(烏斯回)라고도 한다]이었으나, 신라에서 희제(狶蹄)로 고쳐서 양록군(楊麓郡)의 영현(領縣)으로 하였다. 고려에서는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춘천의 속현으로 하였다가 뒤에 회양(淮陽)의 속현으로 하였으며, 공민왕 원년에는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 태종 13년에 통례에 따라 현감으로 고쳤다. 고종 33년 병신년(1896) 8월 4일에는 전국을 13도로 개편하였는데 이때 영동의 강릉부와 영서의 춘천부를 통합하여 강원도라 칭하고 춘천에 감영을 두었다. 인제도 이 당시 군(郡)으로 승격되었다. 이 후 인접 지역인 양구군・홍천군과 접해 있는 서화면과 기린면, 상남면 지역에 대한 영역 조정 과정을 거쳐 현재 1읍 5면 84개리(행정리)를 관할하고 있으며 미수복지로 서화면 이포리, 서희리, 가전리, 심적리, 장승리가 있다.[1)]

인제의 진산(鎭山)은 복룡산(伏龍山)이고, 점봉산, 방태산, 대암산, 한계산 등 주요 산들이 군을 감싸고 있다. 주요 하천은 서화면에서 인제읍으로 흐르는 인북천, 한계령에서 인제읍으로 향하는 한계천, 상남면에서 인제읍으로 향하는 내린천 등이 있으며, 이 세 물줄기가 인제읍 합강리의 합강정(合江亭) 앞에서 만나 소양강으로 향한다.[2)]

인근 지역으로 향하는 옛길은 육로와 수로가 함께 공존하였다. 인근 지역과 연결된 고개는 백두대간을 경계로 고성과 연결되는 진부령・소간령・대간령, 속초로 향하는 미시령, 양양으로 향하는 오색령・곰배령・조침령・박달령, 홍천과 연결된 구룡령, 양구와 연결된 광치령 등이 있기에[3)] 비록 험준한 고갯길이지만 사방

1) 『新增東國輿地勝覽』 46券 江原道 麟蹄縣 建置沿革條; 인제군사편찬위원회(편), 『인제군사』, 인제군, 1996, 149~176쪽.
2) 인제군사편찬위원회(편), 『인제군사』, 인제군, 1996, 51~65쪽.
3) 이만철, 『인제민속사』, 인제문화원, 2000, 275~312쪽.

으로 통로가 열려있는 셈이다.

조선시대의 지리지에 소개된 인제 지역 수운(水運)은 제 3로인 '홍천~인제로'에 속하여 홍천강과 소양강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인제 지역 내의 연결 지점은 '마노(역참) - 가노진 - 인제 - 미륵천 - 원통 부림(역참)'이었다.[4]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인제는 전체 면적의 90% 이상이 임야로 구성되며, 해발 800m이상의 준령이 20여 개인 대표적인 산간지역이다. 이에 인제 지역 마을에서 설행되는 마을 제의 역시 다른 지역과는 달리 산에 좌정한 산신(山神)[산령(山靈)]을 주신(主神)으로 모신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인제지역 마을 신앙을 조사・연구한 기존의 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인제지역 마을신앙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해방 이후인 1967년 문화재관리국에서 전국에 있는 각급 학교 교사들로 하여금 마을제당 설문지 형태로 조사하게 한 자료를 소개한 『한국의 마을제당(강원도 편)』(1996)에 인제군 지역 35개 마을 조사 자료가 실려 있어 1960년대의 인제지역 마을신앙 현장의 대략을 알 수 있다.[5] 이만철은 1996년에 인제군 내 6개 읍면의 69개 마을을 현지 조사하여 마을신앙 구성 요소를 도표로 정리하여 소개하였고[6], 남근우・박신정은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중 「인제군의 민속문화 1」 항목에서 현지 조사한 6개 마을 사례를 소개하여 1990년대 중반의 인제지역 마을신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7] 이후 이학주와 김선일은 인제 지역 41개 마을 제의 현장을 직접 조사한 내용을 3권의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조사 대상 마을에 대한 연혁과 제의 과정, 인근 마을과의 관계, 관련 설화 등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어, 1960년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에 이르는 시기까지의 마을신앙의 변동과 지속적 양상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8] 이와 함께 이학주는 「인제지역 마을

---

4) 도도로키 히로시, 「"대동지지"에 나타난 '동남지평해삼대로(관동대로)'의 경로비정」, 『문화역사지리』 제14권 제 1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2, 88쪽.

5) 국립민속박물관(편), 『한국의 마을제당(강원도)』, 국립민속박물관, 1999, 870~906쪽.

6) 이만철, 『내고장 인제 마을제·인물· 시조와 시』, 인제문화원, 1996, 11~98쪽.

7) 남근우・박신정. 「인제군의 민속문화」(1).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림대학교 박물관·강원도·인제군. 1996, 92~109쪽.

제사의 활용방안과 과제」, 「정자리를 통해 본 민속신앙의 존속과 변천」, 「서화리 대암산과 용늪 기우제에 내재한 원형의식 탐구」를 실어 인제지역 마을신앙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학주는 인제읍 하추리와 남면 정자리 마을지에서 현지 조사한 마을신앙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9]

인제지역 민간신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주로 상남면 김부리에 소재한 대왕당에서 모신 대왕(大王)을 경순왕 또는 마의태자라는 인물신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왕신앙의 일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다룬 것들이다.[10] 인제지역 마을신앙의 일반적인 형태인 산신제에 대한 연구로는 인제읍 가아리를 중심으로 설행되는 마을제의를 조사・연구한 김정하의 글이 있다.[11] 이 글에서 필자는 가아리의 산신제 시기와 구성 원리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산신제는 우주의 순환에 참획하여 산으로부터의 기왕의 혜택에 감사하면서도 미래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의를 지닌 제의로 규정하였다. 이학주는 인제지역 마을 제사의 활용 방안 모색과 함께 개별 사례인 정자리 마을신앙 운영 양상, 서화리 용늪 기우제를 소개하여 인제지역 민간신앙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12] 그리고 마을신앙 범주

---

8) 이학주, 『인제 사람들의 마을신앙』, 인제문화원, 2009.; 김선일, 『인제 사람들의 마을신앙 2』, 인제문화원, 2010.; 이학주, 『인제 사람들의 마을신앙 3』, 인제문화원, 2019.

9) 이학주, 『정자리 사람들』, 인제문화원, 2016.; 이학주, 『하추리 사람들』, 인제문화원, 2017.

10) 윤형준, 「김부리대왕동제의 신격과 역사적 인물의 수용」, 『인제문화』 10, 인제문화원, 1995, 50~76쪽.; 신종원, 「갑둔리 5층석탑 명문과 관련한 역사 해석의 문제」, 『인제 갑둔리 일대 석탑 조사 보고서』, 인제군・강원대박물관, 1996, 84쪽.; 전신재, 「김부대왕 전설의 형성과 변모」, 『강원민속학』 19집, 강원도민속학회, 2005, 50~90쪽.; 권혁준, 「인제군 인물 설화에 나타난 역사성」, 『강원민속학』 20집, 강원도민속학회, 2006, 245~264쪽.; 이학주, 「김부대왕제 연구」, 『동아시아고대학』 제25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1, 137~161쪽.

11) 김정하, 「인제군 산신제의 시기 및 구성 원리 고찰」, 『강원민속학』 21집, 강원도민속학회, 2007, 145~166쪽.

12) 이학주, 「인제지역 마을제사의 활용방안과 과제」, 『인제 사람들의 마을신앙』, 인제문화원, 2009, 313~330쪽.; 이학주, 「정자리를 통해 본 민속신앙의 존속과 변천」, 『인제 사람들의 마을신앙 3』, 인제문화원, 2019, 247~268쪽.; 이학주, 「서화리 대암산과 용늪 기우제에 내재한 원형의식 탐구」, 『인제 사람들의 마을신앙 3』, 인제문화원, 2019,

에 속하지는 않으나 인제지역에서 천신을 모신 전통을 보여주는 한계산성 천제단을 소개한 필자의 글이 있다.[13]

인제지역은 강원도 내 다른 지역과는 달리 산신을 모신 마을 제의 전통이 매우 폭넓게 나타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신제에서 서낭제로 이행한 사례들도 나타난다. 그리고 같은 생활 권역에 속한 인근 마을을 아우르는 대표 제의로서의 성격을 지닌, 이 지역 나름의 마을 단위 산신제 전통을 폭넓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인제지역 마을신앙에 대한 연구는 위에서 소개한 폭넓은 조사 성과와는 달리 김부리의 대왕당 운영과 일부 사례 중심의 연구에 그쳤기에 인제 지역 마을신앙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체계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인제지역 마을신앙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많은 마을에서 산신(산령)을 모신 전통이 매우 폭넓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모시는 신령으로서의 산신이 지닌 의미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일부 사례를 기준으로 한 개념 설정이기에 산신이 지닌 의미를 폭넓게 수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신이 지닌 의미에 대하여 일부 학자들이 나름대로 개념 규정을 하여 산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었으나, 전체적인 양상을 수렴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이에 필자는 기존의 연구 성과, 관련 문헌, 현지 조사 사례 등을 바탕으로[14] 한국에서 산신이 지닌 의미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269~293쪽.

13) 김도현, 「한계산성 천제단의 형태와 성격」, 『한국성곽학보』 23집, 한국성곽학회, 2013, 74~99쪽.

14) 한국의 산악 숭배와 관련하여 신종원교수는 다음 글에 관련 사료(史料)와 사례,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산신(山神)을 '① 산림의 주인, ② 지역 수호신(천신), ③ 조상신'으로 구분하였고, 산신의 성(性)을 비롯하여 산신과 천신・토지신, 성황신과의 관계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신종원, 「한국의 산악숭배와 고대의 삼각산」, 『북한산성 연구논문집』, 경기학연구센터, 2016, 129~178쪽.

필자는 강원도 영동남부지역의 마을신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중의 하나로 산신당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고갯마루에 위치한 산령당과 산에서 모시는 신령들에 대한 다음 논저, 그리고 현지 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산신의 성격을 분류하였다. 김도현,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122~138쪽.; 김도현, 「울진 12령 샛재[鳥嶺] 城隍祠와 褓負商

이해를 돕기 위해 좌정한 공간과 성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산신[15]의 성격 분류

구 분	좌정한 공간	성 격		비 고
		존재론	기능론	
산신 (山神)	· 주로 산과 산자락	'신령-인간' 사이의 위계적 관계 주목 (계급성)	지리적 공간 주재	영역을 관장하는 성황신과 등치[교대] 가능
산령 (山靈) [山王]	· 주로 산과 산자락 · 산령을 개인적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만든 신당(神堂) · 산에서 발현된 신성성이 지나가는 곳	'신령-인간'의 직접적 관계에 주목 (인격성) / 감응(感應)	길흉화복 관장, 신령에게 귀의	산치성 산기도
천왕 (天王)	· 주로 산과 산자락 · 천왕을 모신 주체들에 의해 다른 지역 산이나 특정 공간으로 이동하여 만든 성소	신화상의 시조와의 시원적 계보에 주목 (신화성)	시조와 후손과의 연결을 매개로 상정된 직·간접적인 초월적 염원을 관장 · 총괄	여산신(女山神)으로 모셔지는 사례

일반적으로 산신이 지닌 성격을 3가지로 분류한 위의 [표 1]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團」, 『실천민속학』 16집, 실천민속학회, 2010, 217~259쪽.; 김도현, 「태백산에서의 산신 신앙 전승과 변화」, 『아시아 강원민속학』 30집,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18, 7~59쪽.; 김도현, 「신앙과 산림문화 -산에서 모시는 신령과 의례-」, 『세시풍속과 산림문화』, (사)숲과 문화연구회 · 산림청, 2018, 204~254쪽.

필자가 [표 1]과 같이 산신이 좌정한 공간과 성격을 규명함에 있어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최종성 교수님께서 도움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인제지역 마을신앙 관련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이학주 박사님께서 제공해 주셨다. 지면으로나마 감사함을 전한다.

15) 일반적으로 '산신'이라 불리는 신령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중 '천왕'은 '산신'과 구분되는 신령으로 여겨야 하나, 기능론의 입장에서 '산신(신령)'과 유비될 만한 요소도 있고 차별화될 만한 지점도 있으므로 산신의 분류체계에 포함시켜 양자 간의 학술적 오해를 지양시키고자 했다. 천왕에 대하여 필자가 발표한 다음 글을 참고하기 바람. 김도현, 「환웅신화에 보이는 天王의 성격」, 『《삼국유사의 세계》(최광식 교수 정년기념 논총)』, 세창출판사, 2018, 431~456쪽.; 김도현, 「《帝王韻紀》에 수록된 '天王'의 성격」, 『한국고대사 史料로서의 《帝王韻紀》』, 세창출판사, 2019, 151~185쪽.

첫째, 특정 산을 기준으로 한정된 영역을 관장하는 신령으로 인식되어 해당 영역에서의 안전과 보호 등을 관장하며, 필요에 따라 징벌의 주체가 되는 지위를 부여받은 신령을 일반적으로 '산신'이라고 한다. 이에 축원의 대상 신령으로 모셔지며, 해당 영역의 주인으로 여겨져서 터주로 모셔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공동체신앙의 주신으로 산신을 모시다가, 산신을 터주 또는 상당신으로 모시고, 성황신(城隍神)을 주신으로 모시는 변동 양상이 나타나는 사례들이 매우 많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산신과 성황신이 지닌 기능 중 한정된 영역을 관장하는 신령으로 기능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산에 의존하던 지역이 점차 복합적인 마을 구조로 바뀜으로써 산신에서 마을신(성황)으로 주신이 교체된다 해도 마을공동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둘째, 자연계의 모든 사물과 현상에 영적・생명적 실체가 깃들어 있다는 애니미즘(animism)의 입장에서 '산신'보다는 '산령'으로 신령의 직접적인 인격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산에 좌정하여 길흉화복(吉凶禍福)을 관장하는 종교적 권능을 행사하는 산신령은 '산령'을 이른다. 산에서 행해지는 산기도, 산치성, 산제, 산맞이 등의 신앙 의례에서 모시는 신령 또한 '산령'이며, 축원의 대상 신령으로 모셔지기에 가호(加護)・감응(感應)을 기대하여 모셔지는 사례들이 많다.

셋째, 산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각종 민간신앙 현장에서 모셔지는 신령 중 천왕이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을 처음 연 신화상의 시조를 '천왕'이라고 한다. 천왕을 인식한 사례들은 환웅 신화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역사 전개 과정에서 천왕의 역할을 한 해모수, 구룡산천왕이 되어 신정(神政)을 펼친 고려 태조 왕건의 조상인 호경[16], 고려를 건국한 왕건의 어머니인 위숙왕후를 '지리산 성모'라고 소

16) 고려 태조 왕건의 조상인 '호경(虎景)'과 관련하여 『제왕운기』에는 '구룡산천왕(九龍山天王)'이라 서술되어 있으나, 『고려사』에는 '평나군의 백성들이 호경을 대왕(大王)으로 삼고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냈으며, 아홉 사람이 함께 죽었다 하여 산 이름을 고쳐 구룡산(九龍山)이라 하였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즉, 구룡산을 배경으로 활동한 왕건의 조상인 호경은 『제왕운기』에 '천왕(天王)'이라 서술하였고, 『고려사』에는 '대왕(大王)'이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명칭의 다름에 따른 성격이 다른 신령으로 모셔졌다기보다는 대왕이 지닌 다양한 성격 중 천왕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신령으로 모셔졌다고

개한 기록 등에서도 확인된다. 즉, 부여의 해모수, 왕건의 조상인 호경과 왕건의 어머니도 단웅[환웅] 신화에 등장하는 단웅[환웅]천왕처럼 천왕으로 불리는 신격들이다.

또한 천왕은 마을을 개창한 조상을 있게 한 시조를 일컫는 신령으로 여겨져서 마을 제사에서 주신으로 모셔지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17] 즉, 천왕이 지닌 신령으로서의 의미가 확대 적용되어 국가나 마을, 집안 등을 새롭게 개창한 조상을 탄생시킨 시조신으로서의 위상을 지닌 존재로 산신제를 비롯하여 각종 민간신앙 현장에서 모셔지며,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닌 천왕은 종교 현장이나 기록자에 따라 성모(聖母)·신모(神母)·여산신(女山神)·마고(麻姑) 등 다양하게 불리며,[18] 기자(祈子), 후손들의 평안과 발복(發福) 등을 기원하는 대상 신령으로 모셔진다.

그러므로 천왕을 산령과 구분되는 신령으로 이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19] 대부분의 지역에서 산령과 천왕이 지닌 기능을 구분하지 않고 산령이란 용어에 천왕이 지닌 의미를 가탁하여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산에서 마을 단위의 산신제를 지낼 때 축원하는 내용을 보면 천왕이 관장하는 내용을 비손하는 사례들도 많기에 산신제에서 모시는 산령이 지닌 의미 중의 하나로 설정하였다.[20]

볼 수 있다.
『帝王韻紀』 卷下 本朝君王世系年代 〈…聖骨將軍諱虎景, 今九龍山天王也. …〉
『高麗史』, 「高麗世系」 〈… 欲與爲夫婦, 共理神政, 請封爲此山大王.' 言訖, 與虎景俱隱不見. 郡人因封虎景爲大王, 立祠祭之, 以九人同亡, 改山名曰九龍.〉

17) 김도현, 『《제왕운기》에 수록된 天王의 성격』, 『한국 고대사 史料로서의 《제왕운기》』, 세창출판사, 2019, 181~183쪽.

18) 천왕은 그 용례로 보아 성모(聖母)·신모(神母)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는데, 소재영은 다음 논문에서 '건국 시조를 낳은 지고의 여신'으로 신모를 규정하고, 박제상 부인을 이와 동격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건국 시조를 낳은 존재를 천왕이나 성모라 표현한 사례는 정견천왕을 비롯하여 각종 기록에서 다수 발견된다. 소재영, 「제상설화논고 - 호국문학의 한 패턴 정립을 위한 시론」, 『국문학연구』 53, 국어국문학회, 1971, 71~92쪽.

19) 김도현, 「환웅 신화에 보이는 天王의 성격」, 『《삼국유사의 세계》(최광식 교수 정년기념 논총)』, 세창출판사, 2018, 448~450쪽.

20) 웃대 조상이 돌아가시면 산소를 만들어 모신다. 이와 같이 모셔진 조상에게 각종 축원을 하지 않는다. 삼척을 비롯하여 강원도 산간지역에서 설행되는 산맥이에서의 조상맞이에

산신이 지닌 의미를 위와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산신제(山神祭)'로 명명된 마을 제의에서 주신으로 모시는 '산신'은 위에서 소개한 개별적인 의미를 지녔다기보다는 위의 3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지닌 신령으로 인식되어 모셔지는 사례들이 매우 많다.

참고로 인제지역 마을신앙 조사 보고서[21]를 분석해보면 마을 제의를 산신제 또는 서낭제라고 이르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마을제의 명칭을 '산신제'라고 부르는 마을인 지내비골 산신제, 고사리 산신제, 임명골 산신제 등에서는 산신을 모신 마을제를 지내고, 산신에게 마을의 안정과 풍요를 기원한다.

이에 비해 상남1리 서낭제, 삽재마을 서낭제, 매화동 산신제와 서낭제, 용대 1리 마을제사에서는 비록 마을 제의 명칭이 서낭제이지만, 실제 진행과정에서는 산신을 먼저 위한 후 서낭제를 지낸다. 물론 서낭제를 지내는 마을 중에는 산신제 없이 서낭신을 모셔서 서낭제만을 지내는 사례 또한 많다.

필자는 인제지역 마을신앙을 조사하여 발간된 3권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국의 마을제당(강원도 편)』, 『내고장 인제 마을제·인물· 시조와 시』,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중 「인제군의 민속문화 1」에 소개된 사례[22]를 참고하여 인제지역 마을제의에서 산신을 모신 유형과 성격 분석을 통해 인제 지역 마을신앙을 좀 더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23]

서 모시는 조상은 4대 이내의 조상이다. 이들 조상 또한 축원의 대상이 아니다. 즉, 산에 모셔진 조상이 모두 축원 대상으로서의 산신으로 모셔지지는 않는다.

21) 김선일, 『인제지역 사람들의 마을신앙 2』, 인제문화원, 2010.

22) 국립민속박물관(편), 『한국의 마을제당(강원도)』, 국립민속박물관, 1999, 870~906쪽.; 강원대 국어국문학과 학술조사반, 「강원도 인제군 학술답사 보고서」, 『강원문화연구』 9,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1989, 199~206쪽.; 이만철, 『내고장 인제 마을제·인물·시조와 시』, 인제문화원, 1996, 11~98쪽.; 남근우·박신정. 「인제군의 민속문화」(1).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림대학교 박물관·강원도·인제군. 1996, 92~109쪽.; 이학주, 『인제 사람들의 마을신앙』, 인제문화원, 2009; 김선일, 『인제 사람들의 마을신앙 2』, 인제문화원, 2010.; 이학주, 『인제 사람들의 마을신앙 3』, 인제문화원, 2019.

23) 인제지역 마을신앙 사례를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나, 필자가 분석한 45개 마을 사례가 인제지역 마을 제의를 지역별로 대표한다고 설정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제지역을 대표하는 마을제의를 조사한 보고서(각주 22번 참고)를 바탕으로 분석하되, 기존에 발표된 다양한 사례를

Ⅱ. 인제지역 마을 제의 현황

1. 모시는 신령(神靈)

1967년 문화재관리국에서 마을 제당 운영 사례를 조사하여 펴낸 자료 중에는 인제지역 35개 마을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24] 당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제당 명칭은 산신당[산제당] 17곳, 성황당[서낭당] 8곳, 제당 8곳, 상당 1곳, 제당 명칭 미기재 1곳이다. 이들 제당에서 모시는 신령 중 산신을 주신으로 모신 사례는 17곳, 산신을 상당신으로 모신 후 성황신을 주신으로 모신 사례는 5곳, 성황신을 주신으로 모신 사례는 12곳이다. 그리고 경계를 관장하는 신령인 국시를 모신 사례가 2곳이다.

조사된 35개 마을 사례만으로 인제지역 마을신앙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일단 1967년에는 인제지역의 마을에서 주신으로 모신 신령이 산신 또는 성황신이었음을 알 수 있고, 성황신을 모셨더라도 상당신으로 산신을 터주로 모셨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을에서 모신 신령이 산신 또는 성황신으로 구분되나, 이들 신령을 통해 기원하는 요소는 공통적으로 마을에 들어올 수 있는 재앙이나 질병, 맹수 침탈 등을 막아서 그들의 생활 공간을 지키고, 복을 받으려는 데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각 시・군별로 기존의 조사・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마을신앙 사례를 정리하였는데, 인제군 항목에는 총 110개 마을 사례가 소개되었다.[25] 이 자료에 소개된 제의 사례 중 99개 마을에서 산신제[산제]를 지냈으며, 제의 명칭을 산신제라 하였으나, 인제군 기린면 서1리(음지동), 인제읍 가리산리 1반(쌍다리), 인제읍 귀둔1리, 인제읍 덕적리 2반 마을 제의에서 산신과 성황을

참고하여 오류를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24) 국립민속박물관(편), 『한국의 마을제당(강원도)』, 국립민속박물관, 1999, 870~906쪽.

25) 인제군 사례는 2006년 조사 자료와 1996년에 조사한 다음 보고서에 기재된 사례를 정리하였다. 이만철, 『내고장 인제, 마을제・인물・시조와 시』, 인제문화원, 1996, 11~98쪽.

각각 모셨다. 산신제와 서낭제를 각각 지낸 마을은 기린면 북3리 2반(토현), 북면 월학2리, 인제읍 고사리 2반(본동 텃말), 서화면 서흥2리 1반, 인제읍 가리산리 5반이다. 서낭제만 지낸 마을은 인제군 남면 신남1리-4리, 북면 월학1리이다.

1967년과 2006년에 정리한 제한된 사례들을 통해 인제지역 마을제의 성격을 유추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다른 지역의 마을 제의와는 달리 인제지역에서 산신을 주신으로 모신 사례가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인제지역 마을신앙 사례를 본격적으로 조사한 보고서는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학주와 김선일의 현장 조사에 바탕하여 발간되었다.[26] 여기에 수록된 사례들은 1967년과 1996년에 각각 조사된 마을과 겹치는 마을이 있기에 그간의 변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어 마을신앙의 변동 양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인제지역 41개 마을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마을제의에서 모신 신령들을 중심으로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27]

인제지역 마을 제의 현장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산신제를 중심으로 한 마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 나머지는 산신제라 불리면서 서낭제를 함께 지내는 제의도 있고, 서낭제라 불리나 실제로는 산신에게 축원하는 사례들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산신[산령]이 인제지역 마을 제의에서 모시는 주된 신령임을 알 수 있다.

인제지역 마을제의에서 산신[남・여]과 함께 모셔진 신령은 성황신[남・여], 국사신, 거리신, 대왕, 수부, 잡귀잡신 등이다. 이들 신령 중 주신으로 모셔져서 축원을 관장하는 신령은 산신, 성황신이며, 영역을 관장하는 터주로 기능한 신령은 산신・국사신・성황신이다.[28] 마을을 개창한 시조로 모셔진 신령은 대왕을 비롯하

---

26) 이학주, 『인제 사람들의 마을신앙』, 인제문화원, 2009.
김선일, 『인제 사람들의 마을신앙 2』, 인제문화원, 2010.
이학주, 『인제 사람들의 마을신앙 3』, 인제문화원, 2019.

27) 'Ⅲ. 인제지역 마을제의에서 산신을 모신 유형'에서 각 유형별 사례와 운영 형태, 성격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28) 산신과 성황신을 마을 제의에서 주신으로 모신 마을들이 대부분이지만, 마을제의 변동 과정에서 산신이 터주로 모셔지는 인제읍 가아1리(송정) 텃골 마을 서낭제, 산신을 주신으로 모신 상남면 상남 3리 방아다리 마을 등에서 모셔진 성황은 입구를 관장하는

여 일부 마을에서 모셔진 산신・성황이다. 서화면 서화 1리 99골 서낭제, 북면 용대2리 매주골 산신제와 내가평 서낭제 등에서 모신 수부는 살아서 마을 제의를 주관하고, 모신 신령을 잘 모셨던 분이 돌아가시면 주신 옆에서 축원의 대상은 아니나 간단하게 위해주는 신령이다. 인제읍 가아2리 용소골 산신제, 남면 정자리 4반(아랫말) 등에서 모신 거리신을 비롯한 잡귀잡신은 특별한 종교 기능을 하는 신령은 아니나 위해 주지 않으면 탈이 나기에 헌식의 방법으로 위하는 신령이다.

축문을 통해 마을제의에서 모시는 신령이 지닌 기능을 정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기린면 서1리 3반(양지동) 마을 사례를 소개하면 산천령신(山川靈神)을 통해 '각종 재액[질병, 맹수, 수해, 화재, 도적 피해]을 막고, 마을의 풍성함'을 축원하였고, 성황지신(城隍之神)을 통해 '각종 재액을 막아서 마을 보호・번성・안정'을 축원하였다.

2. 제일(祭日)

인제지역에서 마을 제사를 지내는 시기는 새해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지닌 절기에 지내는 사례, 단오・칠월 칠석 등 마을 내 세시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마을을 관장하는 신령에게 고(告)하기 위해 지내는 사례, 1년을 마무리하기 위해 지내는 사례, 산간지역의 지역성을 반영한 삼월 삼짇날・구월 중양절에 지내는 사례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인제지역 마을 제의 일시는 다음 도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다.

수구신, 인제읍 원대리 삽재마을에서는 서낭[성황]을 마을을 지키는 신령으로 여겨서 모셨다.

[표 2] 각 시기별, 마을제의 유형별[29] 마을제의 시기

구분	1월	2월	3.3	5.5·9.9	8월	9.9	3.3·9.9	1월·8월	1월·9월	2월·8월	3월·4.8	1월·7월·9월	10월	소계
①	1		1				5	2		1	1			11
②						2	5	2		1				10
③					2	1	4					1		8
④	1						2		1					4
⑤	1	1	2			1	3	1				1	1	11
소계	3	1	3	1	2	4	19	5	1	2	1	2	1	45

위에서 정리한 [표 2]의 마을제의 시기를 통해 알 수 있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인 45개 마을 중 37개 마을에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을 제사를 지낸다. 새해의 시작을 언제로 볼 것인가는 마을에 따라 다르다. 책력으로 1년의 시작인 정월 초하루나 정월 초에 좋은 날을 선택하여 지내는 사례, 농경 시작과 관련하여 정월대보름 또는 2월에 지내는 사례, 산간지역이기에 산에서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삼월 삼짇날에 지내는 사례로 구분될 수 있다. 마을의 상황에 따라 다르나, 22개 마을에서 삼월 삼짇날[30]에 마을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보아

29) 인제지역 마을제의에서 모신 신령들을 중심으로 '① 산신을 주신으로 모시는 유형, ② 산신을 주신으로 모시고, 서낭을 하위 신령으로 모신 유형, ③ 산신과 서낭을 대등하게 모시는 유형, ④ 산신을 상당신 또는 터주로 모시는 유형, ⑤ 기타'로로 구분하였는데, [표 2]에는 편의상 유형을 숫자로 표기하였다.

30) 삼월 삼짇날은 사전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음력 3월 3일을 가리키는 말. 고려시대에는 9대 속절(俗節)의 하나였다. 이날을 '강남 갔던 제비 오는 날'이라고도 하며, 삼질(삼월 삼짇날의 준말), 삼샛날 또는 여자의 날이라고 한다. 한자어로는 삼중일(三重日), 삼진일(三辰日), 상사일(上巳日), 상제(上除), 원사일(元巳日), 중삼일(重三日), 답청절(踏靑節), 계음일(禊飮日) 같은 이칭이 있다. 양의 수가 겹치는 삼월 삼짇날은 파릇파릇한 풀이 돋고 꽃들이 피어 봄기운이 완연하다. 그래서 이날은 봄에 걸맞는 모든 놀이와 풍속이 집중되어 있다."(최인학, 「삼짇날」, 『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05.)
삼월 삼짇날과 관련하여 『三國史記』卷 32, 雜志 1, 祭祀條에는 "(고기에) 또 이르기를 고구려에는 항상 3월 3일에 낙랑의 언덕에 모여 사냥을 하고 돼지와 사슴을 잡아서 하늘과 산천에 제사지낸다고 하였다. 〈(古記) 又云 高句麗 常以三月三日 會獵樂浪之丘 獲猪鹿 祭天及山川〉"라는 기록이 보인다. 또한 『三國史記』卷 45 列傳 5, 溫達條에는 "고구려에서는 항상 봄철 3월 3일이면 낙랑 언덕에 모여 사냥을 하고 그 날 잡은 돼지와

공간적으로 산간 지역에 위치한 인제지역의 마을에서는 산에서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삼월 삼짇날을 사실상의 새해 시작으로 여기기에 이 날 마을제사를 지낸다고 볼 수 있다.

둘째, 3개 마을에서는 단오・칠월 칠석 등 마을 내 세시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마을을 관장하는 신령에게 고하기 위해 마을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삼월 삼짇날이나 구월 중양절에 27개의 마을에서 마을 제사를 지낸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사례이다. 그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삼월 삼짇날・구월 중양절 이외의 세시 행사가 많지 않아서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1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마을제사를 지내는 마을은 45개 마을 중 37개 마을에서 8월・9월・10월 중에 지낸다. 이들 마을 중 24개 마을에서 구월 중양절[31]에 마을 제사를 지낸다. 이는 구월 중양절에 추수를 마무리하면서, 조상 제사

사슴으로 하늘과 산천신에 제사지내는데, 그 날이 되면 왕이 나가 사냥하고 여러 신하들과 5부의 병사들이 모두 따라 나섰다. 이 때에 온달이 기른 말을 타고 수행하였다. 〈高句麗 常以春三月三日 會獵樂浪之丘 以所獲猪鹿祭天及山川神 至其日王出獵 臣及五部兵士皆從 於是溫達以所養之馬隨行〉"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울릉도에 소재한 마을 제당을 비롯하여 해신당에서는 삼월 삼짇날에 제의를 베푸는 사례도 매우 많다. 삼월 삼짇날은 산신을 위한 날로서 지금도 이와 관련한 민간신앙 의례가 강원도와 경상도지역에서 매우 많이 베풀어진다.(김도현, 「울진과 울릉도 공동체신앙의 관계성 검토」,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Ⅵ』, 영남대 독도연구소・울진군, 2015, 365~379쪽.)

삼월 삼짇날과 관련한 위의 자료들을 종합하면, 공간적으로 산간 지역에 위치한 마을에서는 산에서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삼월 삼짇날을 사실상의 새해 시작으로 여기기에 이 날 마을제사를 지낸다고 볼 수 있다.

31) 구월 중양절은 사전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음력 9월 9일을 가리키는 날로 날짜와 달의 숫자가 같은 중일(重日) 명절(名節)의 하나. 중일 명절은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같이 홀수 곧 양수(陽數)가 겹치는 날에만 해당하므로 이날들이 모두 중양(重陽)이지만 특히 9월 9일을 가리켜 중양이라고 하며 중구(重九)라고도 한다. 또 '궐'이라고 부르는 지방도 있다. 음력 삼월 삼짇날 강남에서 온 제비가 이때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 가을 하늘 높이 떠나가는 철새를 보며 한해의 수확을 마무리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추석이 햇곡으로 제사 지내기 이른 계절이 되어감에 따라 추수가 마무리되는 중양절에 중구차례를 지내는 등 논농사의 발전에 따라 조상을 위하는 날의 의미를 더해갔다. 조선시대에 이날 기로연을 베풀었다는 사실은 장수에 좋다는 국화주를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는 물론 민간에서도 이날을 경로(敬老)의 날로 인식하였음을 알

를 지내고, 1년 중 산에서의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의미 등을 내포하여 마을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산에서의 본격적인 활동과 관련한 삼월 삼짇날과 함께 산에서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절기에 마을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보아 산간지역인 인제지역의 성격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45개 마을 중 19개 마을에서 삼월 삼짇날과 구월 중양절에 마을 제사를 지낸다. 인제읍 가아1리(송정) 마을 주민들은 3월 3일을 산신이 하강한 날로 인식하기에 마을 제사를 지내는 마을이 많다고 하며[32], 김종대는 영서지역 산간지역 마을제의를 분석한 글에서 "삼월 삼짇날과 구월 중양절에 두 번씩 지내는 곳도 만만치 않은데, 이들 날짜가 산간지역에서는 따뜻함의 시작과 끝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33]는 의견 등을 종합하면, 삼월 삼짇날과 구월 중양절이 산신, 산간지역에서의 생활과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기에 인제지역 마을신앙 분석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수 있다."(정승모, 「중양절」, 『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06.)

황해도 사례를 소개하면, 마을 뒤의 동산 정상 가까이에 산신당이 있어 이곳에서 9월 9일 당제사를 지내는데, 돼지・떡・과일 등을 준비하여 추수감사제의 성격을 지닌 당제사를 지냈다고 한다.(이학주, 『인제 사람들의 마을신앙』, 인제문화원, 2009, 288~289쪽.)

구월 중양절에 마을제사를 지낸 사례는 울진군 죽변면의 직산 2리, 평해읍 후포리의 대고사(정월 보름, 삼월 초정일, 9월 초정일), 기성면 기성리의 해신당제, 평해읍 거일리의 중구고사와 함께 울릉도 학포동, 중간모시개 등 많은 지역에서 발견된다.(김도현, 「울진과 울릉도 공동체신앙의 관계성 검토」,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Ⅵ』, 영남대 독도연구소・울진군, 2015, 379~380쪽.)

울진 구산리 사례를 보면 구월 중양절에 후손이 없는 묘에 가서 술과 제물을 진설하여 이들을 위해준다. 마을 제당에서 구월 중양절에 마을 제사를 지내는 것은 다양한 의미와 목적이 있겠지만 마을 제당이 마을에서 살다가 후손 없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재실 역할도 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김도현, 「울진 12령 샛재[鳥嶺] 城隍祠와 褓負商團」, 『실천민속학』16집, 실천민속학회, 2010, 250~251쪽.)

구월 중양절과 관련한 위의 자료들을 종합하면, 공간적으로 산간 지역에 위치한 마을에서는 1년 중 산에서의 활동이 마무리되는 구월 중양절을 사실상의 1년간의 경제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물을 조상에게 천신하는 의미를 지닌 이 날 마을제사를 지낸다고 볼 수 있다.

32) 이학주, 『인제 사람들의 마을신앙』, 인제문화원, 2009, 29쪽.

33) 김종대, 「강원도 영서지역의 마을 신앙에 대한 초고」, 『한국 민간신앙의 실체와 전승』, 민속원, 1999, 175~176쪽.

3. 제수(祭需)

인제지역 마을제의에서 올리는 제수는 주신에게 올리는 제수와 하위 제차(祭次)에 올리는 제수로 구분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인제지역 마을에서는 산신제, 서낭제, 대왕당제 등 제의 명칭이 다르더라도 마을 제의를 설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물 중의 하나는 돼지이다. 돼지 1마리 또는 돼지머리 1개를 준비하고, 떡・메・술 등은 모시는 신령의 수만큼 준비한다. 북면 한계 1리 2반 뒷골 새 산신제에서는 통돼지, 즉 돼지 1마리를 올리기에 이를 '마리'라고 하며, 돼지의 머리・발・간・콩팥을 올린다. 이와 같은 형태로 돼지 1마리를 올리는 것으로 여기는 마을 또한 인제지역 일부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상남면 하남 1리 매화동 산신제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마을에서 돼지를 올릴 때 수돼지를 올리며, 제당 인근에서 돼지를 직접 잡아서 올린다. 돼지나 돼지머리는 북면 월학 3리 5반 은애골 산신제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마을 제의에서 주신에게 올린다. 일부 마을에서는 하위 제차에 내려서 올리기도 한다.[34] 인제읍 원대리 무장골을 비롯한 일부 마을에서는 돼지 대신 생닭을 올리는 사례도 있다.

인제지역에서는 돼지 1마리, 소 한 마리, 또는 돼지머리 1개를 준비하더라도 이를 부르는 명칭은 '마리'이다. 이는 통돼지 또는 소 1마리를 올렸던 전통에 의해 명명된 흔적이라고 한다.

북면 용대리를 비롯하여 상남면 하남 3리 옷밧골 서낭제와 미기동 서낭제, 인제읍 고사리마을 등 많은 마을에서 명태를 말리는 지역성을 반영하여 북어포나 북어찜 등을 올리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

마을 제의에서 올리는 떡은 산신제나 서낭제에서 주로 백설기를 올리나, 상남면 상남 3리 방아다리 마을, 남면 수산리 샘말 산신제를 비롯한 일부 마을에서 팥시루떡을 올리기도 한다. 남면 정자리 4반 아랫말을 비롯하여 일부 마을에서는 산신제,

---

34) 인제읍 가아2리 용소골에서는 산신제에 올린 돼지머리를 하위 제차(祭次)인 서낭제와 거리제에 차례로 내려서 진설한다.

서낭제를 지내면서 떡을 준비하지는 않고, 메만 올리는 사례들도 있다.

그리고 북면 용대 2리 2반 아니오니 산신제를 비롯하여 많은 마을에서 주신을 위해 준비한 제물을 하위제차에 내려서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다. 이 때 다른 제물과는 달리 메·술 등은 대부분 별도로 준비하여 올린다.

상남면 상남 2리 용소마을을 비롯하여 일부 마을에서 산신을 주신으로 모셨으나, 점차 마을제의 중심이 서낭제로 변동된 사례들이 있다. 이들 마을에서 산신은 상당신으로 모셔진 존재이고, 실제 마을의 안녕을 관장하는 신령은 성황신이다. 이와 같이 마을에서 주신으로 모시는 신령이 변동되어도 준비한 제수는 수퇘지 1마리, 과일, 메, 감주, 북어포 등 큰 변화가 없다.

4. 기타

인제지역 마을 제의에서 볼 수 있는 기타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남면 미산1리 고로쇠 마을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제지역 산신당 등 마을 제당은 마을 공동체 신앙의 처소이면서, 심메마니나 상인들, 주민 개인의 신앙 처소로도 기능한다.

인제지역에서 마을제의 명칭을 '산신제'나 '서낭제'가 아닌 '지당제'라고 이르는 사례들이 다수 나타난다. '산신당·산지당'을 '지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산신을 터주로 여길 때는 '지당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산신의 다양한 기능 중 마을제의에서 '산신제 → 서낭제'로 이행될 때 서낭제를 주된 제의로 여길 때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남면 정자리 4반 아랫말 지당 운영 사례를 보면, 양지도롱골에서의 큰 제사가 끝나면 도가를 맡은 반장이 제물을 챙겨서 작은 지당으로 간다. 보통 저녁에 작은 지당에서 제사를 지낸다. 작은 지당은 거리 제사인데, 정자리 정자각 맞은편 길 아래에 위치해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마을 제당을 인제지역에서 '지당'이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이해된다.

인제지역 마을에서 주된 신령으로 어떤 신령을 모시든 통돼지를 잡아서 올리는

사례들이 매우 많다. 통돼지를 올린 후 분육(分肉), 즉 마을 제의 비용을 희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돼지고기를 공평하게 나눈다는 것이 인제지역 마을제의를 운영하는 과정에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북면 용대리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심메마니'[수부와 구분되는] 등을 위한 별도의 제당 또는 신령 모심 형태가 나타난다. 이는 산간지역인 인제지역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인제지역 마을 제당 형태는 1칸 규모의 제당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제당, 또는 신목(神木), 바위 아래에 제당을 만들어 마을 제사를 지낸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남면 갑둔리 소재(쇄지)골 산신당, 서낭당 사례 등을 보면 산간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큰 바위 아래에 ⌐ 형태로 돌 석축을 6~8단 막돌허튼층 쌓기를 한 뒤, 그 위에 나무를 가로지른 후 다양한 재료로 장방형의 지붕을 올린 형태가 많다.

위에서 소개한 인제지역 마을 제의 또는 제당, 그리고 활용 양상을 보면 산간지역인 인제지역의 지역성을 잘 반영한 마을제의 전통이 형성・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인제지역 마을제의에서 산신을 모신 유형

[표 1]에서 소개한 산신의 성격 3가지를 바탕으로, 인제지역 마을신앙을 조사한 보고서[35]를 참고하여, 인제지역 마을제의에서 모신 산신, 산신의 하위 신령 또는 마을에서 주신으로도 모셔지는 서낭, 그리고 일부 사례이지만 대왕을 주신으로 모신 사례를 포함한 45개 마을제의에서 산신을 모신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5) 논문 작성을 위해 참고한 보고서 목록은 각주 22번 참조.

① 산신을 주신으로 모시는 유형
② 산신을 주신으로 모시고, 서낭을 하위 신령으로 모신 유형
③ 산신과 서낭을 대등하게 모시는 유형
④ 산신을 상당신 또는 터주로 모시는 유형
⑤ 기타 :
㉠ 주신으로 서낭을 모시는 형태이나 내적으로 산신 인식
㉡ 대왕을 주신으로 모시나, 터주 또는 상당신으로 산신 인식

위와 같은 유형으로 설정한 이유와 함께 각 유형별 제당 위치, 제의 구조, 함께 모시는 신령, 제일, 주요 제수, 축원 내용, 그리고 해당 유형의 산신 성격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산신을 주신으로 모시는 유형

인제지역에서 산신을 주신으로 모신 마을 제의는 조사 대상 45개 마을 중 11개 마을에서 확인할 수 있다.[36] 인제군을 구성하는 6개 읍・면[37]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읍・면사무소가 있는 중심 마을에서 벗어난 산간지역에서 주로 발견된다.

산신을 주신으로 모시는 유형에 속한 마을에서는 마을 제의 명칭을 '산신제'라

36) 인제지역 조사 대상 마을 중 산신을 주신으로 모신 마을은 다음과 같다.
・기린면 현4리 임명골 산신제
・남면 남전 1리 1반 대마지골 산신제
・남면 신풍리 지내비골 산신제
・남면 정자리 1반 숯가마골 지당[산지당]
・북면 용대 3리 산신제(3・4반 산신당)
・북면 월학 3리 5반 운애골 산신제
・북면 한계 1리 2반 뒷골 산신제
・상남면 미산1리 고로쇠 마을 방태산 산신제
・서화면 서흥 2리 앞골 마을 남명골 산신제
・서화면 천도2리 1・2반 피안골 산신제(동네 치성)
・인제읍 합강 2리 국사당 산신제

37) 인제군을 구성하는 6개 읍・면은 인제읍, 기린면, 남면, 북면, 상남면, 서화면이다.

하며, 산신당[산제당]에서 산신을 모신다. 그리고 산신제를 지내는 과정에 술을 올리고 절을 한 후 소지를 올릴 때 산신 소지, 마을 전체 소지와 함께 마을 주민들을 위한 개별 소지를 올린다. 결국 마을전체의 안녕과 풍요를 산신에게 기원하면서 마을 주민들을 위한 개별적인 축원도 산신에게 올리는 것이다.

산신을 모신 제당은 대부분 산 중턱이나 골짜기 내 능선의 큰 바위나 나무 아래에 위치하나, 서화면 서흥 2리 앞골 마을에서는 산신제를 지낸 후 마을 입구에 와서 거리제를 지낸다.

또한, 산신을 주신으로 모신 이들 마을에서는 산신을 모신 후 마지막 제차에서 고수레[고시레]를 한다. 서화면 천도2리 피안골에서 고수레의 대상은 산신령을 보좌하는 수부 또는 잡귀로 인식되는 존재[38]인데, 위하는 방법은 제수 일부를 떼어 제단에 올려두는 형태이다.

그리고 이 유형에 속한 마을의 제일은 서화면 서흥 2리 앞골 마을(1월 중), 남면 신풍리 지내비골(1월, 8월)을 제외하면 9개 마을에서 삼월 삼짇날, 구월 중양절이다. 이들 마을에서는 1년의 시작을 산에서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삼월 삼짇날로 여기며, 1년 마무리 또한 산에서의 활동을 종료하고 조상을 위하는 구월 중양절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제일 선택은 산간지역에서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일부 마을에 축문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축문 없이 소지를 올리면서 구송하는 형태로 마을 주민들의 염원을 표현하였다. 이 때 대부분의 마을에서 산신에게 마을 안녕과 풍요, 각 가정별 안위를 축원하였다.

산신제를 위해 준비한 제수는 대부분의 마을에서 주과포, 메·떡과 함께 통돼지나 돼지머리 등이다. 인제읍 합강 2리 국사당 산신제에서는 삼월 삼짇날에는 닭을 준비하고, 구월 중양절에는 통돼지를 준비하였으며, 북면 월학 3리 운애골 산신제

38) 인제지역에서 고수레의 대상으로 여기는 존재를 '산신령을 보좌하거나 잡귀'로 인식하는 것은 2가지 존재를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산신령을 보좌하는 존재'는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수부'로 볼 수 있으며, '잡귀'는 산신제에서 모시는 신령은 아니나 산신제를 지낸다기에 모여든 모든 잡귀들을 의미한다.

중 남산신제(男山神祭)에는 돼지머리를 준비하나, 여산신제(女山神祭)에서는 돼지나 돼지머리를 올리지 않는다.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한 모든 마을에서 통돼지 또는 돼지 머리를 올린다. 통돼지를 올리는 마을에서는 산신제를 지낸 후 돼지고기를 마을 주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여 산신의 음덕을 함께 공유한다.

이 유형에 속한 산신은 3가지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북면 월학 3리 5반 운애골 산신제에서 모셔진 산신 중 남산신(男山神)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산신제에서 모셔지는 산신을 통해 마을 주민들은 전염병을 예방하고, 맹수의 침탈을 막는 등 마을이 안정적으로 지켜지길 기원한다. 이와 같은 기능은 앞서 필자가 설정한 산신의 성격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산신을 마을이 속한 산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관장하는 신령으로 인식하고, 해당 영역에서의 안전과 보호의 주담당자로 간주하는 것이다.[39]

둘째, 남면 남전 1리 1반 대마지골과 상남면 미산1리 고로쇠 마을 방태산 산제당에서 개인적으로 산삼 캔 사람들이 산신에게 감사하고 향후에도 산삼 발견을 기원하기 위해 산치성을 드린다고 한다. 서화면 천도2리 1·2반에서는 피안골 산신제를 '동네 치성' 드린다고 한다. 축원의 대상 신령으로 모셔진 산신에게 가호(加護)·감응(感應)을 기대하며 모신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이들 마을에서 모셔진 산신은 산에 좌정하여 길흉화복을 관장하고 종교적 권능을 직접 행사하는 '산령'으로 인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산신제에서 모시는 산신의 성(性)을 인식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북면 월학 3리 5반 운애골 산신제에서는 산신을 남산신과 여산신으로 구분하여 모시며, 남면 남전 1리 1반 대마지골 산신제에서는 구체적인 신령의 명칭을 알 수는 없으나 여신으로 여겨지는 산신을 포함하여 5분 신령을 모신다. 그리고 북면 한계 1리 2반 뒷골과 서화면 천도리 피안골에서 지내는 산신제에서 모시는 산신을

39) 대부분의 마을들은 산신제를 지내면서 산신에게 역질 구축과 액살이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축원하기에 영역 관장과 마을 보호를 산신에 의탁한다고 볼 수 있으나, 서화면 서흥 2리 앞골 마을에서는 마을 입구에서 각종 역질과 액살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거리신을 위한다. 이와 같은 사례는 산신에게 집중된 염원이 분산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여산신으로 여긴다. 여산신은 종교 현장이나 기록자에 따라 성모(聖母)·신모(神母)·천왕(天王)·마고(麻姑)[40] 등 다양하게 불리며, 기자(祈子), 후손들의 평안과 발복(發福), 기우(祈雨) 등을 위한 대상 신령으로 모셔진다. 이들 신령들을 대표하는 신령의 명칭을 천왕으로 설정할 수 있다.[41]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천왕을 산령과 구분되는 신령으로 이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42] 대부분의 지역에서 산령과 천왕이 지닌 기능을 구분하지 않고 산령이란 용어에 천왕이 지닌 의미를 가탁하여 인식하고 있다. 인제지역 마을에서 여산신으로 인식하여 모신 산신은 역사 기록과 다른 지역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천왕의 성격을 지닌 신령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인제지역에서 산신을 주신으로 모신 마을에서 산신이 지닌 의미와 기능을 위와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마을 제의에서 주신으로

---

40) 성모·신모로 불리운 여산신 관련 기록은 『三國史記』·『三國遺事』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몇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三國史記』 卷第十二 新羅本紀 第十二, 敬順王條, 〈… 臣富軾以文翰之任輔行, 詣佑神館見一堂設女仙像, 館伴 學士王黼曰, 此貴國之神, 公等知之乎, 遂言曰, 古有帝室之女, 不夫而孕, 爲人所疑, 乃泛海抵辰韓 生子, 爲海東始主, 帝女爲地仙, 長在仙桃山, 此其像也, 臣又見大宋國信使王襄祭東神聖母文, 有"娠賢肇邦" 之句. 乃知東神則仙桃山神聖者也, 然而不知其子王於何時. …〉
『三國遺事』 卷 第五, 感通第七, 仙桃聖母隨喜佛事, 〈其始到辰韓也, 生聖子爲東國始君, 盖赫居·閼英二 聖之所自也. 嘗使諸天仙織羅, 緋染作朝衣, 贈其夫, 國人因此始知神驗.… 神母本中國帝室之女, 名 娑蘇. 早得神仙之術, 歸止海東, 久而不還, 父皇寄書繫足云, 隨鳶所止爲家. 蘇得書放鳶, 飛到此山 而止, 遂來宅爲地仙, 故名西鳶山. 神母久據茲山, 鎭祐邦國, 靈異甚多. 有國已來, 常爲三祀之一, 秩在群望之上.〉
『三國遺事』 卷 第一 紀異第一 奈勿王 金堤上條, 〈初, 堤上之發去也, 夫人聞之追不及, 及至望德寺門 南沙上, 放臥長號, 因名其沙曰長沙. 親戚二人, 扶腋將還, 夫人舒脚坐不起, 名其地曰伐知旨. 久後 夫人不勝其慕, 率三娘子上鵄述嶺, 望倭國痛哭而終, 仍爲鵄述神母, 今祠堂存焉.〉
『帝王韻紀』 卷下, 「本朝君王世系年代」, 〈… 於焉誕聖智, 聖母智異山天王也 命訣師, 指此明堂謂, 斯爲 種穄田, 因以爲王氏. 俗呼穄爲王, 蓋言興王業也.…〉.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二十九, 高靈縣, 建置沿革條, 〈… 按崔致遠釋利貞傳云 伽倻山神正見母主 乃爲天 神夷毗訶之所感 生大伽倻王惱窒朱日 金官國王惱窒靑裔二人 則惱窒朱日爲伊珍阿豉王之別稱 靑裔 爲首露王之別稱 …〉
41) 김도현, 『《제왕운기》에 수록된 天王의 성격』, 『한국 고대사 史料로서의 《제왕운기》』, 세창출판사, 2019, 164~181쪽.
42) 김도현, 『《제왕운기》에 수록된 天王의 성격』, 『한국 고대사 史料로서의 《제왕운기》』, 세창출판사, 2019, 181~183쪽.

모시는 '산신'은 위에서 소개한 개별적인 의미를 지녔다기보다는 위의 3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지닌 신령으로 인식되어 모셔진다고 볼 수 있다.

2. 산신을 주신으로 모시고, 서낭을 하위 신령으로 모신 유형

인제지역에서 산신을 주신으로 모시고, 서낭을 하위 신령으로 모신 마을 제의는 조사 대상 45개 마을 중 10개 마을에서 확인할 수 있다.[43] 인제군을 구성하는 6개 읍・면 중 상남면에 속한 4개 마을과 기린면・남면・북면・인제읍에 분포되어 있는데, 읍・면사무소가 있는 중심 마을에서 벗어난 산간지역에서 주로 발견된다.

산신을 주신으로 모시고, 서낭을 하위 신령으로 모시는 유형에 속한 마을에서는 마을 제의 명칭을 '산신제'라 하여 산신당[산제당]에서 주신인 산신을 모시고, 산신의 하위 신령으로 마을 입구를 관장하는 신령으로 인식되는 서낭을 모신다.[44] 그리고 서낭제를 지낼 때는 서낭 소지만을 올리나, 산신제를 지내는 과정에 산신 소지, 마을 전체 소지와 함께 마을 주민들을 위한 개별 소지를 올린다. 이를 통해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산신께 기원하고, 마을 주민들을 위한 축원도 산신에게 올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45]

---

43) 인제지역 조사 대상 마을 중 산신을 주신으로 모시고, 서낭을 하위 신령으로 모신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기린면 방동 2리 1반 댓골 산신제
- 남면 갑둔리 소재골 산신제와 서낭제
- 남면 정자리 2반 기령골 지당(산신, 서낭)
- 남면 정자리 4반(아랫말) 서낭제
- 북면 용대 2리 2반 아니오니 산신제
- 상남면 김부리 산치성제
- 상남면 상남 3리 방아다리 마을 흙다리 산신제와 서낭제
- 상남면 하남 1리 매화동 산신제와 서낭제
- 상남면 하남 3리 후평동 지당제와 서낭제
- 인제읍 가아2리 용소골 산신제, 성황제, 거리제

44) 이 유형에 속한 상남면 상남 3리 방아다리 마을 흙다리 산신제와 서낭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45) 이와 관련하여 상남면 상남 3리 방아다리 마을에서 마을 제사를 지낼 때 제당에 금줄을

이 유형에 속한 마을에는 산신당[산제당]과 서낭당이 있는데, 산신을 모신 제당은 대부분 산 중턱이나 골짜기 내 능선의 큰 바위나 나무 아래에 위치한다. 남면 갑둔리 소재골 서낭당은 마을 중턱의 밭가에 있고, 상남면 상남 3리 방아다리 마을 할머니 제당[46]은 현재 할아버지제당[산신당] 옆에 있으나, 원래는 마을 입구에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상남면 하남 1리, 상남면 하남 3리 후평동 등 이 유형에 속한 대부분의 서낭당은 산신을 모신 산제당[또는 산신당, 지당] 옆에 위치한다.[47]

그리고, 산신을 주신으로 모시고, 서낭 등을 하위 신령으로 모신 마을인 남면 갑둔리 소재골, 상남면 하남 1리 매화동 등의 마을에서는 산신제를 지낸 후 간단하게 서낭제를 지낸다. 북면 용대 2리 2반 아니오니 산신제에서는 '산신제 → 서낭제 → 마니제'의 순서로 마을제사를 지낸다. 이 마을에서는 심메마니로 생활하면서 산신을 잘 모셨던 사람이 돌아가시면 마니당에 모시고, 매년 산신제를 지낼 때 마니제를 함께 지낸다. 이에 산신제에서는 산신만을 모시나, 서낭제에서는 상당신으로 산신을 모신 후 서낭을 위한다. 마니제에서는 상당신으로 산신과 서낭을 모시면서 선대 심메마니를 모신 마니제를 지낸다. 그리고 산신을 모시거나, 서낭을 모신 후 마지막 제차에서 고수레[고시레]를 한다.[48]

인제읍 가아2리 용소골에서는 '산신제 → 성황제 → 거리제'의 순서로 마을 제사를 지내는데, 산신제와 성황제를 지낼 때 각각 고수레를 한다. 산신제에는 이에 더하여 수부를 위한다. 그리고 마을로 내려와서 각종 역질이나 액살이 마을로 들

할아버지 제당[산신당]에만 치고, 할머니 제당에는 금줄을 걸지 않는다고 한다. 남면 갑둔리 소재골에서는 산신제에서 산신과 함께 마을 주민들을 위한 소지를 올리나, 서낭제사에서는 도서낭님 소지만 올리고 마을 주민들을 위한 소지나 축원은 없다. 이와 같은 사례 또한 산신 중심의 제의 구조를 잘 보여준다.

46) 상남면 상남 3리 방아다리 마을 할머니 제당은 상당신으로 산신을 모시고, 주신으로 서낭을 모시기에 서낭당으로 볼 수 있다.

47) 산신당 옆에 원래부터 서낭당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남면 상남 3리 방아다리 마을 사례 등을 통해 이 유형에 속한 서낭당은 마을 입구에 위치하여 마을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신령으로 서낭을 모셨기에 마을 내 또는 마을 입구에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을 제의 중심 제당인 산신당 옆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48) 고수레를 산신제와 서낭제에서 각각 설행하는 사례도 있으나, 상남면 하남 1리 매화동에서는 서낭제를 지내고 음복을 한 후 고시레를 한다. 인제지역에서 각 제의별로 고수레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고수레를 설행하는 제차는 마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리제를 지내는 전통이 전승되고 있다.[49]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이 유형에서 '산신제 → 서낭제'의 기본적인 순서에다 마을 전통에 따라 수부를 모셔서 마을 제의 전통을 이어온 조상들을 위하거나, 하위 제차로 거리제를 부가해 염원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한 마을의 제일(祭日)은 1월과 8월에 마을제사를 지내는 기린면 방동 2리 댓골, 상남면 상남 3리 방아다리 마을을 제외한 7개 마을에서 삼월 삼짇날, 구월 중양절에 마을 산신제를 지낸다.[50] 이 유형에 속한 마을들은 서낭을 하위 신령으로 모시지만 산신제 중심의 제의 전통을 지녔기에 삼월과 구월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마을에 축문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축문 없이 소지를 올리면서 구송하는 형태로 마을 주민들의 염원을 표현하였다. 상남면 상남 3리 방아다리 마을에서는 축문의 제목을 '산신령축(山神靈祝)'이라 하였으나, '천지신(天地神)・오악산왕(五岳山王)(팔부산령[八部山靈], 본부산령[本部山靈])・성황신(城隍神)'을 모셔서 축원을 하며, 독축(讀祝) 후 소지를 올릴 때 산신과 함께 성황을 초들어서 축원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마을에서 산신에게 마을 안녕과 풍요, 각 가정별 안위를 축원하였다.

산신제와 서낭제를 위해 준비한 제수는 대부분의 마을에서 주과포, 메・떡과 함께 통돼지나 돼지머리 등이다. 상남면 상남 3리 방아다리 마을에서 산신제를 지낼 때 암퇘지를 올리나, 상남면 하남 1리 매화동 산신제에서는 수퇘지 1마리를 올린다. 이를 통해 돼지의 암수 구분은 마을에 따라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통돼지를 올리는 마을에서는 산신제를 지낸 후 돼지고기를 마을 주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여 산신의 음덕을 함께 공유한다.

---

49) 인제지역 거리제에 대한 별도의 연구 성과는 없으나, 인근 지역인 홍천지역의 거리제 관련 다음 논문을 통해 인제 지역 거리제가 지닌 성격을 파악함에 참고가 된다.(이영식, 「강원도 홍천군 동면과 서석면 지역의 마을제의 변화양상」, 『東아시아古代學』 34호, 2014, 227~253쪽.)

50) 북면 용대 2리 2반 아니오니에서는 매년 삼월 삼짇날에 마을 전체를 위한 산신제를 지내고, 구월 중양절에는 개인 차원의 치성을 드린다. 이를 통해 구월 중양절에 조상을 위한 전통이 마을 공동 제장(祭場)을 통해서도 전승됨을 알 수 있다.

상남면 상남 3리 방아다리 마을 산신제에서는 팥시루떡을 준비하나, 상남면 하남 3리 후평동 지당제에서는 백설기를 준비한다. 일반적으로 산신제에는 백설기를 올리나, 이 지역에서는 팥시루떡을 올리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의를 위해 준비하는 떡을 특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상남면 하남 1리 매화동을 비롯하여 다수의 마을에서는 메만 별도로 준비하고, 산신제에 올린 제수를 대부분 서낭제에 내려서 사용한다. 이에 서낭제를 지낼 때 상당신으로 산신을 모시는 남면 정자리 2반 기령골 지당을 비롯한 몇 개 마을에서는 메 2그릇을 제외한 산신제에 올린 제수를 그대로 올린다.

이 유형에 속한 산신은 2가지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북면 용대 2리 2반 아니오니 산신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산신제에서 모셔지는 산신을 마을이 속한 산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관장하는 신령으로 인식하여 전염병을 예방하고, 맹수의 침탈을 막는 등 마을이 안정적으로 지켜지길 기원한다.

남면 갑둔리 소재골 산신제에서 산신을 '본부산천 산신령・좌부 산천 산신령・우부산천 산신령'이라 하여 마을을 보호해 준다고 여기는 산신의 관장 영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북면 용대 2리 2반 아니오니에서 서낭제와 마니제를 지낼 때 상당신으로 산신을 모시고, 상남면 상남 3리 방아다리 마을의 할머니제당에서 산신과 함께 성황을 모신 사례들은 산신을 상당신 또는 터주로 모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좀 더 명확하게 특정 권역을 관장하는 신령으로서의 산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남면 갑둔리 소재골에서는 산삼을 캐는 등 좋은 일이 있으면 산제당에 정성을 드리는 등 축원의 대상 신령으로 모셔진 산신에게 가호・감응을 기대하여 모셨다. 이에 해당하는 마을에서 모시는 신령은 산에 좌정하여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종교적 권능을 직접 행사하는 '산령'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유형에 속한 마을의 하위 신령으로 모시는 서낭은 마을을 지켜주는 신령으로 볼 수 있다. 산신이 지닌 기능과 중복될 여지는 있으나, 서낭은 산을 포함하는 마을 내 영역이라기보다는 마을 주민들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을 지켜주는 신령으로 모셔졌기에 주로 마을 입구[51] 또는 마을 내에

좌정하였다.

정리하면, 인제지역에서 산신을 주신으로 모시고, 서낭을 하위 신령으로 모신 마을에서 산신이 지닌 의미와 기능을 위와 같이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마을 제의에서 주신으로 모시는 '산신'은 위에서 소개한 개별적인 의미를 지녔다기보다는 위의 2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지닌 신령으로 인식하여 모셔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영역을 관장한다는 측면에서 산신이 지닌 첫째 성격과 서낭이 지닌 의미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산신은 산을 포함한 마을 전체를 관장하는 신령으로 볼 수 있는 데 반해 서낭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생활하는 공간 또는 마을 입구를 지키는 신령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3. 산신과 서낭을 대등하게 모시는 유형

인제지역에서 산신과 서낭을 대등하게 모신 마을 제의는 조사 대상 45개 마을 중 8개 마을에서 확인할 수 있다.[52] 인제군을 구성하는 6개 읍·면 중 서화면을 제외한 5개 읍·면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 중 4개 마을 사례가 인제읍에서 발견된다. 인제지역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이어서 마을 제당이 주로 산 능선이나 계곡에 위치하기에 이 유형에 속한 마을 제당 역시 읍·면사무소가 있는 중심 마을에서 벗어난 곳에서 주로 발견된다. 그러나 인제읍에 속한 4개 마을에서 산신과

---

51) 상남면 상남 3리 방아다리 마을에서는 '수구당[막이]'이라 하여 마을 입구에 성황당이 있었는데, '성황당'을 '수구당[막이]'이라 하였다는 사례가 이를 반증한다.

52) 인제지역 조사 대상 마을 중 산신과 서낭을 대등하게 모신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기린면 서1리 3반(양지동) 물안골 산신제와 양지동 서낭제
- 남면 수산리 산신제와 서낭제
- 북면 용대2리 4, 5, 6반 매주골 산신제와 내가평 서낭제
- 상남면 하남3리 산신제, 서낭제
- 인제읍 가아2리 새적 마을 산신제, 서낭제, 거리제
- 인제읍 가아1리(송정) 텃골 서낭제와 산신제
- 인제읍 고사리마을 고사리 산신제, 지당에서의 제의(或曰 서낭제)
- 인제읍 원대리 무당골 산신제, 서낭제

서낭을 동등하게 모신 사례가 등장하였다는 점은 마을에서 산신을 주신으로 모신 전통이 점차 서낭을 산신과 대등하게 모시는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산신과 서낭을 대등하게 모시는 유형에 속한 마을에서는 산신을 모신 산신제와 서낭을 모신 서낭제 상호간에 제수, 절차, 축원하는 요소 등이 대등하다. 즉, 산신제를 위한 제수와 서낭제를 위한 제수를 각각 준비하며, 인제읍 원대리를 비롯하여 북면 용대 2리의 경우 산신제와 서낭제의 제의 절차가 유사하다. 이 때 축원을 위해 모신 신령은 다르지만 산신제와 서낭제에서 마을 전체와 개별 주민들을 위한 소지를 각각 올리면서 안녕과 풍요를 기원한다. 제의 절차 중 잡귀를 위해 주는 고수레도 산신제와 서낭제에서 각각 설행한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통해 이 유형에 속한 마을에서 산신과 서낭을 대등하게 모신다고 볼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한 마을에는 산신당[산제당]과 서낭당이 있는데, 산신을 모신 제당은 대부분 산 중턱이나 골짜기 내 능선의 큰 바위나 나무 아래에 위치하며 대개 산신당 또는 지당[53]이라고 한다.[54] 이에 비해 서낭 또는 성황을 모신 제당은 서낭당 또는 성황당, 지당이라고 한다. 인제읍 가아1리(송정) 텃골 서낭당을 비롯하여 기린면 서1리 3반 양지동 서낭당, 남면 수산리 샘말 서낭당 등은 마을 뒷산 또는 마을 내에 위치한다. 이 유형에 속한 마을 중에서 인제읍 가아1리(송정) 텃골 서낭당은 마을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길 옆에 있고, 산신당은 산 아래에 있었으나, 현재 서낭당 옆으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남면 하남 3리 미기동 서낭당은 후평동에서 미기동으로 가는 도로 중간 지점에 있는데, 지당[산신당]은 서낭당 옆에 있다. 남면 수산리 샘말 또한 산 골짜기에 있던 산신당을 마을 입구 우측의 큰 떡갈나무 아래에 위치한 성황당 옆으로 이전하여 산신제와 서낭제를 지내고 있다.

---

53) 인제지역에서 제당을 이르는 명칭인 '지당'은 마을에 따라 산제당 또는 서낭당을 의미한다. 즉, 마을 내에 산신당 또는 산제당으로 불리우는 제당이 있는데, '지당'이 있다면 이는 서낭당이다. 서낭당이 있는데, '지당'이라 불리우는 제당이 있다면 이는 산신당으로 볼 수 있다.

54) 기린면 서1리 3반(양지동) 물안골 산신당은 물안골 계곡 오른쪽에 있으며, 남면 수산리 샘말 산신당은 원래 덕거리・되래골・도화골 별산신당이 있어 각각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인제읍 가아1리(송정) 텃골 산신당 또한 원래의 위치는 산 아래에 있었다고 한다.

앞서 소개한 산신을 주신으로 모시고, 서낭을 하위 신령으로 모신 마을제의 유형에서는 서낭당을 산신당이 위치한 곳 옆으로 이전하였는데, 산신제와 서낭제를 대등하게 지내는 유형의 마을에서는 산신당을 마을 내에 위치한 서낭당 옆으로 이전한 사례들이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산신제와 서낭제가 대등하게 설행되면서 산신당을 서낭당이 위치한 곳으로 점차 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산신제 중심의 마을제의가 점차 서낭제로 이행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산신과 서낭을 각각 대등하게 모신 마을인 인제읍 원대리, 상남면 하남3리, 인제읍 고사리마을 등에서는 산신제를 지낸 후 동일 또는 유사한 절차로 서낭제를 지낸다.

이와는 달리 북면 용대2리 4,5,6반에서는 매주골 산신제에서 산신을 위한 후 어인신과 수부를 위한다. 즉, 산신제 과정에서 심마니와 산신제를 잘 지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제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내가평 서낭제에서는 서낭을 위한 후 마을에 살고 있는 각 가구별 소지를 올려준다. 이를 통해 표면적으로는 산신제와 서낭제를 대등하게 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마을 내에서 산신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린면 서1리 3반 양지동에서는 물안골 산신제를 지낸 후 양지동 서낭제를 지낸다. 산신제에서는 마을, 제관, 각 가구별 소지와 함께 가축 소지를 올리는데, 서낭제에서는 마을 소지를 올린 후 가구별로 서낭에게 떡을 바친 후 소지를 올린다. 이와 같이 소지를 올리는 제차를 통해 마을 주민들을 위한 중심 제의가 산신제이나, 별도의 떡을 준비하여 가구별로 소지를 올리는 서낭제를 통해 마을 주민들이 개별적인 축원을 하기에 산신제와 함께 서낭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제읍 가아1리(송정) 텃골에서는 서낭제를 먼저 지낸 후 유사한 절차로 산신제를 지낸다. 서낭제를 지낼 때 서낭, 마을, 마을 주민들을 위한 소지를 차례로 올리나, 산신제를 지낼 때는 산신과 마을 전체 소지를 올리기에 서낭제를 마을의 중심 제의로 여긴다고 볼 수 있다.

남면 수산리 샘말에서는 옛날에 산신제를 지낸 후 서낭제를 지냈는데, 현재 산신제와 서낭제를 같이 지낸다. 마을 입구 우측의 큰 떡갈나무 아래에 위치한 성황당 옆으로 산에 있던 산신당을 이전하였다. 이를 통해 마을제의가 산신제와 서낭제로 구분되어 운영되다가, 서낭제에 산신제가 대등하게 합사되는 형태로 변동되어 운영됨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소개한 사례들을 통해 산신제와 서낭제를 대등하게 지낸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산신제 중심의 마을제의가 서낭제 중심으로 미세하게 변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5]

또한 대부분의 마을에서 산신을 모시거나, 서낭을 모신 후 마지막 제차에서 고수레[고시레]를 한다.[56]

그리고 이 유형에 속한 마을의 제일은 인제읍 가아1리 텃골, 상남면 하남 3리에서 8월이고, 기린면 서1리 3반(양지동)에서 정월・7월・9월이다. 이들 마을을 제외한 5개 마을에서 삼월 삼짇날, 구월 중양절에 마을 산신제를 지낸다.[57]

산신제와 서낭제를 각각 지내는 사례가 대부분이기에, 인제읍 가아1리(송정)와 기린면 서1리 3반(양지동), 인제읍 원대리, 상남면 하남 3리, 인제읍 고사리마을 등에서는 산신제와 서낭제를 지내는 과정 중 축문을 각각 읽는다. 이들 마을 중

---

55) 산신제 중심에서 서낭제 중심으로 변동되는 과정은 위에서 소개한 '북면 용대2리 4,5,6반 산신제와 서낭제 → 기린면 서1리 3반 양지동 산신제와 서낭제 → 인제읍 가아1리(송정) 텃골 서낭제와 산신제 → 남면 수산리 샘말에서의 서낭제에 산신제가 합사된 사례'가 잘 보여준다.

56) 인제읍 가아1리(송정) 텃골, 북면 용대2리 4,5,6반, 인제읍 고사리마을, 인제읍 원대리 등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산신제와 서낭제를 지내면서 각각 고수레를 한다. 그런데 기린면 서1리 3반(양지동)에서는 서낭제보다 좀 더 중시하는 산신제를 지내는 과정에서 고수레를 하고, 상남면 하남 3리에서는 마을 제의를 마무리하는 서낭제를 지내는 과정에서 고시레를 한다.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고시레를 하는 시기 또한 마을제의 분석에서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기에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57) 북면 용대2리 4,5,6반 매주골 산신제는 구월 중양절에 지내고, 내가평 서낭제는 삼월 삼짇날에 지낸다. 그리고 남면 수산리 샘말과 인제읍 가아2리 용소골에서는 삼월 삼짇날과 구월 중양절에 산신제와 서낭제를 지냈으나, 지금은 삼월 삼짇날에만 산신제와 서낭제를 지낸다. 이를 통해 마을 제사를 지내는 전통이 점차 약화되면서 1년에 한 번 지내고, 제일은 1년을 시작하는 의미를 지닌 시기에 마을 제사를 주로 지내게 됨을 알 수 있다,

인제읍 가아1리(송정) 텃골 서낭제에서는 성황과 토지신을 모시고, 산신제에서는 산신을 모신 축문을 읽는 등 제의에 연결된 신령을 모시는 사례가 대부분이다.[58] 산신제와 서낭제에서 축원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린면 서1리 3반(양지동) 사례를 보면, 물안골 산신제에서는 산천령신(山川靈神)에게 각종 재액[질병, 맹수, 수해, 화재, 도적 피해]을 막고, 마을의 풍요를 축원하고, 양지동 서낭제에서는 성황지신(城隍之神)에게 마을로 들어오는 재액을 막아서 보호하고, 마을의 번성을 축원한다. 산신제와 서낭제에서 축원하는 요소가 비슷하나, 산신제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요소들을 적시하여 마을의 안녕을 축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신제와 서낭제를 위해 준비한 제수는 앞서 소개한 유형의 마을제의와 유사하여 대부분의 마을에서 주과포, 메・떡과 함께 통돼지나 돼지머리 등을 준비하여 올린다. 상남면 하남 3리 옷밧골 서낭제와 미기동 서낭제, 인제읍 고사리마을 고사리 산신제와 서낭제, 인제읍 가아2리 용소골 산신제와 서낭제 등에서는 산신제에 올린 통돼지나 돼지머리를 서낭제에 내려서 올린다.[59] 기린면 서1리 3반(양지동) 물안골 산신제에서는 돼지머리를 올리나, 양지동 서낭제에서는 돼지고기 육적을 올린다.

이와 같이 주요 제수 중의 하나인 통돼지나 돼지머리를 마을에서 '마리'라 하여 1마리[개]를 준비하여 올린다. 이와는 달리 인제읍 원대리 삽재마을 산신제에서는 생닭을 준비하여 올리며, 북면 용대2리 4,5,6반에서는 원래 소[또는 소머리, 통돼지]를 준비하였으나, 지금은 돼지머리를 올린다.

그리고 이 유형에 속한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통돼지[또는 돼지머리]만 한 마리를 준비하고, 다른 제수는 대부분 각각 준비한다.[60] 이와는 달리 상남면 하남 1리

58) 상남면 하남 3리 미기동 서낭제에서는 산신을 모신 축문을 읽는다. 서낭제이기에 서낭을 모셔야 하나, 산신을 모신 축문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산신을 주신으로 모시다가, 서낭을 함께 모시는 형태로 변동되면서 나타난 혼선으로 보인다.

59) 인제읍 가아2리 용소골에서는 산신제에 올린 돼지머리를 서낭제와 거리제를 지낼 때 내려서 각각 올린다.

60) 북면 용대2리 4,5,6반 매주골 산신제와 내가평 서낭제 사례를 보면 서낭제보다는 산신제를

매화동 서낭제에서는 메를 별도로 준비하고, 산신제에 올린 제물을 내려서 서낭제를 지낸다. 이와는 달리 남면 수산리 샘말 산신제와 서낭제에는 제수 2상을 준비하여 동시에 진설한다. 물론 돼지머리는 1개만 올린다.

북면 용대2리 4,5,6반 매주골 산신제와 내가평 서낭제에서 메를 각각 2그릇 준비하는데, 이는 각각의 제의에서 모시는 신령이 2분이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이 유형에 속한 마을에서 산신제 중심의 마을제의가 서낭제 중심으로 미세하게 변동되면서 산신과 서낭을 대등하게 각각 모시지만, 실제 제의 과정에서 준비한 제수를 보면 산신제에 올린 제수를 서낭제에 내려서 진설하거나, 산신제를 위한 제수에 더 큰 정성으로 준비한 사례들을 보면 내재적으로 산신제를 더 크고 중요하게 여긴 전통이 이 유형에도 유효함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한 산신은 3가지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인제읍 원대리에서 산신을 마을 수호 신령으로 여기며, 기린면 서1리 3반(양지동) 물안골 산신제에서는 산천령신을 모셔서 각종 재액[질병, 맹수, 수해, 화재, 도적 피해]을 막아 줄 것을 축원한다. 이와 같은 기능은 앞서 필자가 설정한 산신의 성격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신을 마을이 속한 산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수호하는 신령으로 인식하여 해당 영역에서의 안전과 보호 등을 관장하는 신령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61]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서낭을 대등하게 모시기에 산신이 지닌 기능과 중복된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인제읍 원대리 삽재마을에서는 서낭제에서 모시는 서낭이 '마을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며, 남면 수산리 샘말에서는 서낭제에서 모시는 성황신을 안분으로 여긴다. 이는 산을 포함한 마을 전체를 관장하는 산신과는 달리, 마을 주민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의 안녕을 관장하는 신령으로 성황신을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신의 성격과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위해 준비한 제수에 더 많은 정성을 드린 사례들이 많다.

61) 인제읍 가아2리 용소골과 새적 마을에서는 산신제와 서낭제를 지낸 후 마을 입구에서 각종 역질과 액살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거리신을 위한다. 이와 같은 사례는 산신이나 성황신에 집중된 축원 대상이 분산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둘째, 인제읍 가아2리 용소골에서는 산신제를 지낸 후 혼사, 산삼 채취 등 좋은 일이 있으면 모두 '산신' 덕분이라고 여긴다. 북면 용대2리 4,5,6반 매주골에서 모시는 산신을 통해 산삼 채취, 상업의 번성 등을 기원하고, 인제읍 가아2리 용소골에서도 좋은 일이 있으면 산신 덕분이라고 여기며, 마을 주민들은 산신제에 모신 산신을 통해 그들이 염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축원한다. 축원의 대상 신령으로 모셔진 산신에게 가호・감응을 기대하였기에 이들 마을에서 모셔진 산신은 필자가 설정한 산신의 성격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에 좌정하여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종교적 권능을 행사하는 '산령'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이 유형에 속한 마을 중 인제읍 가아1리(송정) 텃골 산신제에 모신 산신을 여신으로 여겨 풍요와 다산을 염원하며, 기린면 서1리 3반(양지동) 물안골 산신제, 북면 용대2리 4,5,6반 매주골 산신제에서도 산신을 여신으로 여기면서 개인적으로 자식 기원과 가정 우환 방지 등을 축원한다. 종교 현장이나 기록자에 따라 성모・신모・천왕・마고 등 다양하게 불리는 여산신은 산신・산령과 구분되는 천왕의 성격을 지닌 신령으로 볼 수 있다.[62]

그리고 이 유형에 속한 서낭은 사람들이 직접 생활하는 공간을 지켜주면서,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는 대상 신령으로 모셔진다. 인제읍 가아1리(송정) 텃골에서는 개인 단위로 축원할 때 서낭당에 와서 성황신에게 치성을 드린다. 이에 더하여 북면 용대2리 4,5,6반 매주골 산신제와 서낭제에서는 하위 제차로 수부와 어인을 위한다. 수부는 마을 제사를 주도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며, 어인마니는 평소 개인적인 염원을 산신과 서낭께 축원하며 치성을 드리다가 돌아가신 분들이다. 이들은 죽어서 산신이나 서낭님 퇴반을 받아먹고 지낸다고 여기기에 축원의 대상 신령은 아니고, 제의 중에 위해주는 존재들이다.

정리하면, 인제지역에서 산신과 서낭을 대등하게 모신 마을에서 산신이 지닌 의미와 기능을 위와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마을 제의에서

62) 성모・신모로 불리는 여산신 관련 기록 검토와 천왕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산신에 대하여 앞서 정리한 각주 15, 18, 40번에 관련 내용들을 소개하였기에, 관련 내용은 각주 15, 18, 40번을 참고할 것.

주신으로 모시는 '산신'은 위에서 소개한 개별적인 의미를 지녔다기보다는 3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지닌 신령으로 인식되어 모셔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산신과 대등하게 모셔지는 서낭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생활하는 공간을 지키고, 마을과 개인의 풍요를 위해 모셔진 신령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산신을 상당신 또는 터주로 모시는 유형

인제지역 마을제의에서 산신을 주신으로 모셨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며 서낭[성황신]을 주신으로 모심에 따라 산신을 상당신 또는 터주로 모신 마을 제의는 조사 대상 45개 마을 중 4개 마을에서 확인할 수 있다.[63]

인제군을 구성하는 6개 읍·면 중 북면·상남면·서화면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 유형에 속한 마을 제당 역시 면사무소가 있는 중심 마을에서 벗어난 산 능선이나 계곡에서 주로 발견된다. 서낭[성황신]을 주신으로 모신 사례들은 주로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 모여서 살아가는 마을에서 확인할 수 있기에 이 유형에 속한 마을들은 비록 산간지역에 소재한 마을이라도 마을 주민들이 근거리에 모여 살기에 성황을 주신으로 모신 마을제의로 변동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서낭[성황신]을 주신으로 모심에 따라 산신을 상당신 또는 터주로 모신 유형에 속한 마을에서는 산신을 별도로 모시거나, 상당신 또는 터주로 위하는 수준에서 모시고, 마을을 보호하고 안녕과 풍요를 축원하는 대상 신령은 서낭[성황]이다.

상남면 상남4리 고석평 엄달골을 비롯하여 이 유형에 속한 마을에서는 마을제의를 '서낭제'라 하며, 서낭제를 지낸 후 산신제를 지내거나, 산신제에서 산신에게 인사드리는 정도의 예를 갖춘 후 마을을 위한 제사는 서낭제로 여긴다. 이에 따라

63) 인제지역 조사 대상 마을 중 산신을 상당신 또는 터주로 모시고, 성황을 주신으로 모신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북면 용대리 마장터 소간령에 위치한 서낭당
- 상남면 상남4리 고석평 엄달골 산신당, 성황당
- 상남면 상남 2리 용소마을 서낭제[성황제]
- 서화면 서화 1리 99골 할아버지당, 할머니당

산신제보다 서낭제를 위한 제수 준비에 더 정성을 드리며, 마을과 각 가정을 위한 소지 또한 서낭제의 하위 제차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이 유형에 속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서낭[성황]께 기원하고, 마을 주민들을 위한 축원의 대상 신령 또한 서낭[성황]임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한 마을의 제당은 마을의 중심 제당인 서낭당과 함께 산신당[산지당, 지당]은 대부분 마을 내 서낭당 옆에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소개하면, 상남면 상남4리 고석평 서낭당은 원래 계곡 아래에 있었으나, 지금은 마을 내에 있다. 산신당 또한 마을 내에 성황당과 나란히 있다. 1996년 조사 자료에 의하면 고석평 마을에서는 원래 산신제 중심의 마을 제의였으나, 마을 제의가 서낭제 중심으로 변동됨에 따라 서낭당을 비롯한 제당을 마을 내 현재의 위치로 이동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서화면 서화 1리 99골에서는 산신을 상당신 또는 터주로 모시고, 서낭[성황신]을 주신으로 모신다. 우선 서낭고사를 지낸 후 산신께 술을 한잔 올리는데, 이는 '산신'을 상당신으로 위해주면서, 실제 마을 안녕과 축원의 대상 신령은 '서낭[성황신]'으로 간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64] 위의 사례들과는 달리, 북면 용대리 마장터 소간령에 위치한 서낭당에서의 제의는 산신을 상당신으로 먼저 간단하게 위한 후 서낭제를 지낸다.

그리고 이 유형에 속한 마을의 제일은 1월 15일에 지내는 상남면 상남 2리 용소마을, 초정일과 구월 중양절에 마을제사를 지내는 상남면 상남4리 고석평 마을을 제외한 2개 마을에서 삼월 삼짇날, 구월 중양절에 마을 산신제를 지낸다.[65] 이

64) 이와 유사한 제의 구조로 마을 제사를 지내는 상남면 상남4리 고석평에서도 '서낭제 → 산신제' 순서로 마을 제사를 지낸다. 서낭제를 지내는 과정에 소지를 올려 축원할 때 성황, 마을 소지를 올린 후 각 가구별 소지를 올려준 후 고수레를 하여 서낭제에 동참한 다양한 귀신들을 위해 준다. 이후 서낭당 옆에 있는 산신당에서 산신제를 지내는데, 산신제에서의 소지 축원은 산신만을 위한다. 준비한 제수 또한 메를 제외한 다른 제수들은 서낭제에 올린 제수를 내려서 진설한 것으로 보아 마을 주민들을 위한 중심 제의가 서낭제임을 알 수 있다.

65) 북면 용대리 마장터 소간령에 위치한 서낭당과 서화면 서화 1리 99골 서낭제는 매년 삼월 삼짇날과 구월 중양절에 지내다가 지금은 서화 1리 99골 서낭제는 현재 구월 중양절에 1번 지내는 것으로 변동되었다.

유형에 속한 마을들은 서낭을 주신으로 모시고, 산신을 상당신이나 터주로 모시기에, 책력 상 1년의 시작인 1월 초정일에 서낭제를 지내는데, 상남면 상남4리 고석평 엄달골 성황제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는 달리 다른 마을들은 표면적으로 서낭제이지만, 산신제 중심의 제의 전통을 지녔기에 삼월 삼짇날과 구월 중양절을 중시한다.

서화면 서화 1리 99골을 비롯하여 이 유형에 속한 마을에서 서낭제를 지낼 때 읽는 축문에는 성황신을 모셔서 마을고사를 지낸다.[66] 축원 내용은 마을의 안녕과 풍요, 산에서의 안전 등을 공통적으로 기원한다. 앞서 소개한 제일이 산간지역에서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마을이기 때문이다.

산신제를 위해 준비한 제수는 매우 간단하거나, 성황제에 올린 제수를 내려서 지낸다. 이에 비해 서낭제를 위해 준비한 제수는 산신제보다 더 많은 정성을 드린다. 기본적으로 주과포와 메・술과 함께 통돼지(또는 돼지머리)를 주요 제수로 올린다. 산신을 주신으로 모시는 마을에서 준비한 제수와 유사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산신을 주신으로 모신 산신제 중심의 마을 제의가 서낭제로 이행되었어도, 내면에는 산신제를 지냈던 전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67]

이 유형에 속한 산신은 서낭제를 지낼 때 상당신으로 모셔지기에 표면적으로 산신이 지닌 첫 번째 성격, 즉 산을 관장하는 지위적 의미를 지닌 산신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서화면 서화 1리 99서낭제에서의 제의 과정 중 주신으로 서낭을 모시고 있으나, 축원을 할 때 '산신령님'을 초들어서 기원한다는 점에서 내재적으로는 여전히 산령으로서의 인식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6) 이 유형에 속한 상남면 상남 2리 용소마을 서낭제에서 축문을 읽는데, 서낭제임에도 축문 제목은 산신령축, 모시는 신령은 천지지신, 오악지신, 팔부산령, 본부산령이다. 마을을 대표하는 제의가 산신제에서 서낭제로 변동되는 과정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67) 서화면 서화 1리 99서낭제에서의 제의 과정 중 주신으로 서낭을 모셨으나, 축원을 할 때 '산신령님'을 초들어서 축원을 한다는 사실을 통해 산신제의 전통이 폭넓게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기타

인제지역 마을제의에서 현재 산신을 모시지 않고, 서낭[성황]이나 대왕을 주신으로 모신 마을 제의는 조사 대상 45개 마을 중 12개 마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1967년 조사 자료, 1996년 조사 자료, 비손할 때 산신을 모시는 북면 월학 2리 비실골, 상남면 상남면 상남 1리, 상남면 월학 2리, 인제읍 덕산리 1반 원송골 서낭제, 상남면 김부리 대왕제 등을 보면, 제의 명칭은 서낭제 또는 대왕제인데, 실제 제일, 제수 중 돼지 올림, 기능 등에서 산신제를 지냈던 전통이 서낭[성황신] 또는 대왕을 모신 전통으로 변동되어 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68]

이들 마을에서 연행되는 마을제의를 심도 있게 분석하면, 인제군을 구성하는 6개 읍・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주로 읍・면사무소가 있는 중심 마을을 포함하여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 모여서 살아가는 마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한 마을들을 비롯하여 산간지역에 소재한 마을이라도 마을 주민들이 근거리에 모여 살기에 성황을 주신으로 모신 마을제의가 정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서낭[성황신]이나 대왕을 마을제의의 주신으로 모신 유형에 속한 마을에서, 마

---

68) 인제지역 조사 대상 마을 중 표면적으로는 서낭제 또는 대왕을 모신 마을제를 지내나, 산신을 모셨던 전통이 내재되어 있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기린면 진동 1리 상치전골 서낭제
- 기린면 현리 박대감 서낭제
- 남면 신남 1리 (1~4리 주민 모두 참여) 서낭제
- 남면 정자리 3반 샛말 서낭제
- 북면 용대 1리 남교 선녀마을 서낭제
- 북면 원통 2리 아전살이 서낭제
- 북면 월학2리 비실골 서낭제
- 서화면 서화 2리 당봉산 서낭제
- 인제군 상남면 상남 1리 서낭제
- 인제읍 덕산리 1반 원송골 서낭제
- 인제읍 하추리 가래나무골 서낭제[치성제]
- 상남면 김부리 대왕제

을을 보호하고, 안녕과 풍요를 축원하는 대상 신령은 표면적으로 서낭[성황] 또는 대왕이다. 이 유형에 속한 마을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서낭[성황]께 기원하고, 마을 주민들을 위한 축원의 대상 신령 또한 서낭[성황] 또는 대왕이다.

그런데 이전에 조사되었던 자료, 마을 주민들의 제보, 산신을 모신 마을제의 사례와의 비교 등을 통해 산신제를 지냈거나 산신을 모셨던 전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상남면 김부리에서 대왕제를 오월 단오와 구월 중양절에 지내는데, 대왕제와는 별개로 본동은 2월과 8월 초정일, 단지골에서는 1월과 7월 초정일에 산치성과 서낭제를 지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인제지역 서낭제나 대왕제에 산신을 모셨던 전통이 내재되었을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이 유형에 속한 마을 제당은 기린면 진동 1리 상치전골 서낭당을 비롯하여 상남면 상남 2리 용소마을 서낭당, 상남면 김부리 대왕각 등의 사례를 통해 마을 내 또는 마을에서 가까운 산 아래에 주로 위치함을 알 수 있다. 즉, 마을 주민들이 일정한 범위 내에 모여 생활하는 곳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유형에 속한 마을의 제일은 1월 중, 2월 중, 삼월 삼짇날, 오월 단오·구월 중양절[69], 1월·8월 중, 1월·7월·9월 중, 10월 중으로 매우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삼월 삼짇날·구월 중양절에 서낭제를 지내는 마을은 3곳이고, 삼월 삼짇날이나 구월 중양절에 지내는 마을은 4개 마을이다.

12개의 마을 중 7개 마을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유형에 속한 마을들은 표면적으로 서낭제이지만, 1년의 시작을 산에서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삼월 삼짇날로 여기며, 1년 마무리 또한 산에서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조상을 위하는 구월 중양절로 설정한 것으로 보아 산간지역에서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마을 제의로 볼 수 있다.

서화면 서화 2리 당봉산 서낭제를 비롯하여 이 유형에 속한 다수의 마을에서 서낭제를 지낼 때 읽는 축문에는 성황신을 모셔서 마을고사를 지낸다. 그런데, 인

69) 상남면 김부리 대왕제 제일임.

제군 상남면 상남 1리 서낭제에는 천지신, 오악산왕, 팔부산령, 본부산령을 모신 축문, 남면 신남 1리 유목동 닭바우 서낭제 중 산령을 모신 망월제 축문, 상남면 상남 2리 용소마을 서낭제의 축문 제목은 산신령축이고, 실제로 호명될 신령은 천지지신, 오악지신, 팔부산령, 본부산령 등으로 적혀있다. 12개 마을 중 3개 마을 사례에서 산신을 모신 전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 제의 명칭은 비록 서낭제이지만, 3개 마을의 축문 내용, 대부분의 마을에서 축원한 내용이 마을의 안녕과 풍요, 산에서의 안전 등을 공통적으로 기원한다는 점에서 산신을 모셨던 전통이 서낭제에 내재되어 전승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또한, 북면 용대 1리 남교 선녀마을 서낭제에서 준비한 제수는 돼지머리(옛 통돼지), 과일, 제주, 북어포, 메 등인데, 이 유형에 속한 대부분의 서낭제에 준비한 제수가 비슷하다. 인제지역 산신제를 지내는 대부분의 마을에서도 돼지를 비롯하여 준비한 제수와 이 유형에 속한 서낭제를 위해 준비한 제수가 서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서낭을 주신으로 모신 서낭제로 이행되었어도, 내용적으로는 산신제를 지냈던 전통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낭[성황신]이나 대왕을 마을제의의 주신으로 모신 유형으로 설정한 이유, 제일, 축원 내용, 제수 등을 종합하면, 서낭제 또는 대왕제에 모신 서낭[성황신]·대왕은 필자가 앞서 제시했던 산신의 세 가지 성격을 함축하고 있다. 즉, 지위적 의미를 지닌 산신의 성격은 물론, 산에 좌정하여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종교적 기능을 행사하는 '산령', 시조와 후손과의 연결을 매개로 상정된 직·간접적인 초월적 염원을 관장·총괄하는 산신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70]

70) 인제지역 서낭제 또는 대왕제에서 모셔진 서낭 또는 대왕이 지닌 위와 같이 추론하여 정리한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향후 다른 기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Ⅳ. 인제지역 마을제의에서 모시는 산신의 성격

1. 제의 구조

인제지역 마을제의에서 산신을 모신 제의 구조는 앞서 소개한 5개의 유형을 통해 산신과 함께 모신 서낭, 국사, 수부, 마니, 거리신, 잡귀들을 다양한 형태로 모시거나 위하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각 유형별 제의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산신을 주신으로 모시는 유형에서는 남면 남전 1리 1반 대마지골 산신제 사례를 통해 산신을 모신 산신제만 지내는 마을이 있으나, 북면 한계 1리 2반 뒷골 산신제, 서화면 천도2리 1・2반 피안골 산신제, 기린면 현4리 임명골 산신제 등 이 유형에 속한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산신제를 지내면서 말미에 잡귀 또는 수부를 위한 고수레를 한다.

산신을 주신으로 모시고, 서낭을 하위 신령으로 모신 유형에서는 산신제를 지낸 후 서낭제를 지내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면 정자리 4반(아랫말), 상남면 상남 3리 방아다리 마을, 상남면 하남 3리 후평동에서는 산신제를 지낸 후 서낭제를 지낸다. 남면 갑둔리 소재골에서는 산신제를 지내면서 말미에 고수레를 하고, 별도로 서낭제를 지낸다. 북면 용대 2리 2반 아니오니에서는 산신제를 지내면서 말미에 고수레를 하고, 별도로 서낭제를 지낸 후 마니제를 지낸다. 즉, 살아있을 때 산신을 잘 모신 심메마니를 위하는 마니제를 별도로 지낸다. 인제읍 가아2리 용소골 산신제에서는 산신제와 서낭제를 각각 지낸 후 마을에서 거리제를 지낸다. 기린면 방동 2리 1반 댓골 산신제는 산신과 서낭을 합사하여 함께 모신다. 즉, 이 유형에서 산신과 함께 모시거나 위하는 신령에 따라 5가지의 제의 구조로 세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신과 서낭을 대등하게 모시는 유형에서도 산신제를 지낸 후 서낭제를 지내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인제읍 가아1리(송정) 텃골에서는 서낭제를 먼저 지낸

후 산신제를 지낸다. 이 때 고수레를 각각의 제차 말미에 한다. 인제읍 원대리에서는 산신제를 지낸 후 서낭제를 지내는데, 이 때 고수레를 각각의 제차 말미에 한다. 북면 용대2리 4,5,6반 매주골 산신제에서 산신을 주신으로 모신 후 어인[심마니]과 수부를 각각 위한 후 고수레를 한다. 이후 서낭제를 별도로 지낸다. 남면 수산리 샘말에서는 산신제와 서낭제를 합사하여 지낸 후 고수레를 한다. 이 유형에서 산신과 함께 모시거나 위하는 신령에 따라 4가지의 제의 구조로 세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신을 상당신 또는 터주로 모시는 유형에서는 서낭제를 지낸 후 산신제 또는 산신을 위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남면 상남4리 고석평 엄달골 성황제에서는 성황제를 지낸 후 산신제를 지내는데, 각각의 제의 말미에 고수레를 한다. 서화면 서화 1리 99골 서낭제에서는 서낭을 주신으로 모신 후 산신을 위하고, 고수레를 하며, 별도로 수부를 위한다. 이 유형에서 산신과 함께 모시거나 위하는 신령에 따라 2가지의 제의 구조로 세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제지역 마을제의에서 현재 산신을 모시지 않고, 서낭[성황]이나 대왕을 주신으로 모신 마을 제의 유형에서는 서낭제에 산신을 모셨던 전통이 내재되었거나, 별도의 시기에 산신을 모신 사례들이 있으나, 표면적으로는 산신을 모신 제의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제지역에서 마을제의 구조는 산신을 모신 제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되어 설행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유형별로 세분화된 이유는 각 마을이 지닌 특징과 변화과정이 마을제의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마을 형성 이후 마을공동체가 체계적으로 유지되는 마을에서는 마을을 이끌면서, 마을 제사를 잘 모셨던 선대 어르신들을 수부로 여겨 별도로 위해준다. 산삼을 채취하는 심메마니들이 산신제를 지낼 때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평소에 산신을 잘 위할 때 이들을 별도로 위함을 알 수 있다. 서낭을 주신으로 모실 때 서낭을 먼저 위한 후 산신을 위하는 마을 사례들도 일부 존재한다. 그리고 일부 마을에서 마을로 유입될 수 있는 역질이나 재앙을 막기 위해 거리제를 지내는 사례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마을에서 산신제를 지낸다기에 모여든 잡귀잡신들을 위해 헌식의 방법

으로 위해주는 고시레를 제의 말미에 설행함을 알 수 있다.

2. 마을에서 모시는 산신의 성격

인제지역 마을 산신제에서 산신 또는 산령으로 불리는 신령을 모신다. 그런데 일부 마을에서는 산신의 성을 특정하여 여산신, 남산신으로 구분한 사례들도 있고, 동서남북 방향을 나타내는 글자를 접두어로 쓴 산신을 모신 사례들도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 또한 필자가 정의한 산신이 지닌 3가지 성격 중 하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인제지역 마을에서 모시는 산신이 지닌 성격은 앞서 소개한 [표 1]에서 필자가 3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한 산신의 성격 중 일부 또는 3가지 성격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산신이 지닌 성격 중 산신을 마을이 속한 산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관장하는 신령으로 인식하고, 해당 영역에서의 안전과 보호 등을 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신령으로 모신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산신을 모신 또는 내재적으로 산신을 모신 것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마을 제의 유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71]에 속한 북면 월학 3리 5반 운애골 산신제에서 모셔진 산신 중 남산신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산신제에서 모셔지는 산신에게 마을 주민들은 전염병을 예방하고, 맹수의 침탈을 막는 등 마을이 안정적으로 지켜지길 기원한다.

둘째 유형[72]에 속한 북면 용대 2리 2반 아니오니 산신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산신제에서 모셔지는 산신을 마을이 속한 산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관장하는 신령으로 인식하여 전염병을 예방하고, 맹수의 침탈을 막는 등 마을이 안정적으로 지켜지길 기원한다.

남면 갑둔리 소재골 산신제에서 산신을 '본부산천 산신령·좌부 산천 산신령·우부산천 산신령'이라 하여 마을을 보호해 준다고 여기는 산신의 관장 영역을 좀

71) 첫째 유형은 '산신을 주신으로 모시는 유형'이다.
72) 둘째 유형은 '산신을 주신으로 모시고, 서낭을 하위 신령으로 모신 유형'이다.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모신다. 즉, 관장하는 영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이를 담당하는 신령으로 모셨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북면 용대 2리 2반 아니오니에서 서낭제와 마니제를 지낼 때 상당신으로 산신을 모시고, 상남면 상남 3리 방아다리 마을의 할머니제당에서 산신과 함께 성황을 모신 사례들은 산신을 상당신 또는 터주로 모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좀 더 명확하게 특정 권역을 관장하는 신령으로서의 산신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유형[73]에 속한 마을인 인제읍 원대리에서는 산신을 마을 수호 신령으로 여기며, 기린면 서1리 3반(양지동) 물안골 산신제에서는 산천령신을 모셔서 각종 재액[질병, 맹수, 수해, 화재, 도적 피해]을 막아 줄 것을 축원한다. 이와 같은 기능을 고려할 때, 산신을 마을이 속한 산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수호하는 신령으로 인식하고 해당 영역에서의 안전과 보호 등을 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신령으로 의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넷째와 다섯째 유형[74]에 속한 마을에서 인식되는 산신은 서낭제를 지낼 때 상당신으로 모셔지기에 표면적으로 산을 관장하는 지위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

두번째로, '산신'이라기보다는 산에 좌정하여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종교적 권능을 행사하는 '산령'으로 인식되어 모셔진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산신을 모신 또는 내재적으로 산신을 모신 것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마을 제의 유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각 유형별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에 속한 마을인 남면 남전 1리 1반 대마지골과 상남면 미산1리 고로쇠마을 방태산 산제당에서 개인적으로 산삼 캔 사람들이 산신에게 감사하고 향후에도 산삼 발견을 기원하기 위해 산치성을 드린다고 한다. 서화면 천도2리 1・2반에서는 피안골 산신제를 '동네 치성' 드린다고 한다. 축원의 대상 신령으로 모셔진 산신에게 가호・감응을 기대하여 모셔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유형에 해당하는 마을인 남면 갑둔리 소재골에서는 산삼을 캐는 등 좋은

73) 셋째 유형은 '산신과 서낭을 대등하게 모시는 유형'이다.
74) 넷째와 다섯째 유형은 각각 '산신을 상당신 또는 터주로 모시는 유형', '기타'이다.

일이 있으면 산제당에 정성을 드리는 등 축원의 대상 신령으로 모셔진 산신에게 가호・감응을 기대하여 모셨다

셋째 유형에 속한 마을에 해당하는 북면 용대2리 4,5,6반 매주골에서 모시는 산신을 통해 산삼 채취, 상업의 번성 등을 기원하고, 인제읍 가아2리 용소골에서는 산삼 채취 등 좋은 일이 있으면 산신 덕분이라고 여기며, 마을 주민들은 산신제에 모신 산신을 통해 그들이 염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축원한다.

넷째 유형에 속하는 서화면 서화 1리 99서낭제에서 주신으로 서낭을 모셨으나, 축원을 할 때 '산신령님'을 초들어서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나쁜 것을 물리치고, 안전을 기원하며, 풍요를 기원하기에 산령에 의탁한 마을 사례로 볼 수 있다.

세번째로, 기자(祈子), 후손들의 평안과 발복(發福), 기우 등을 위한 대상 신령의 성격을 지닌 산신으로 모셔진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산신을 주신으로 모시는 유형을 비롯하여, 산신과 서낭을 대등하게 모시는 유형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닌 산신은 신령의 성을 여산신으로 특정하여 모신 사례들에서 주로 나타난다. 산신을 남산신과 여산신으로 구분하여 모시는 마을은 북면 월학 3리 5반 운애골 산신제이다. 산신을 여산신으로 여기는 마을 사례를 소개하면, 인제군 남면 남전 1리 1반 대마지골 산신제에서는 구체적인 신령의 명칭을 알 수는 없으나 여신으로 여겨지는 산신을 포함하여 5분 신령을 모신다. 북면 한계 1리 2반 뒷골과 서화면 천도리 피안골에서 지내는 산신제에서 모시는 산신을 여산신으로 여긴다. 인제읍 가아1리(송정) 텃골 산신제에 모신 산신을 여신으로 여겨 풍요와 다산을 염원하며, 기린면 서1리 3반(양지동) 물안골 산신제, 북면 용대2리 4,5,6반 매주골 산신제에서도 산신을 여신으로 여기면서 개인적으로 자식 기원과 가정 우환 방지 등을 축원한다.

여산신은 종교 현장이나 기록자에 따라 성모・신모・천왕・마고 등 다양하게 불리며, 기자, 후손들의 평안과 발복, 기우 등을 위한 대상 신령으로 모셔진다. 인제지역 마을에서 여산신으로 인식하여 모신 산신은 역사 기록과 다른 지역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천왕의 성격을 지닌 신령으로 볼 수 있다.

인제지역 마을제의에서 모시는 산신이 지닌 의미와 기능을 위와 같이 크게 3가

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양한 형태로 모시는 '산신'은 앞서 소개한 개별적인 의미를 지녔다기보다는 위의 3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지닌 신령으로 인식되어 모셔지는 사례들이 매우 많다.

V. 맺음말

본문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같은 생활 권역에 속한 인근 마을을 아우르는 대표제의로서의 성격을 지닌 산신제와는 달리, 인제 지역 나름의 마을 단위 산신제 전통을 폭넓게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신제에서 서낭제로 변동된 사례들도 정리할 수 있었다.

인제지역 마을 제의 현장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산신제를 중심으로 마을제사를 지내는 마을이 다수이며, 그 나머지는 산신제라 불리면서 서낭제를 함께 지내는 제의도 있고, 서낭제라 불리나, 실제로는 산신에게 기원하는 요소들을 축원하는 사례들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산신[산령]이 인제지역 마을 제의에서 모시는 주신임을 알 수 있었다.

인제지역 마을제의에서 산신[남・여]과 함께 모셔진 신령은 성황신[남・여], 국사신, 거리신, 대왕, 수부, 잡귀잡신 등이다. 이들 신령 중 주신으로 모셔져서 축원을 관장하는 신령은 산신, 성황신이며, 영역을 관장하는 터주로 기능한 신령은 산신・국사신・성황신이다.

본고를 작성하기 위해 분석한 45개 마을 중 산에서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삼월 삼짇날을 사실상의 새해 시작으로 여겨서 이 날 마을제사를 지내는 마을이 22개이고, 추수를 마무리하면서 조상 제사를 지내고, 1년 중 산에서의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의미 등을 내포한 구월 중양절에 마을제사를 행한 곳이 24개이다. 이 시기에 마을제사를 지내는 마을이 조사 대상 마을 중 50% 이상이라는 사실은 산간지역인 인제군의 성격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제지역 마을제의에서 산신제 또는 서낭제를 위한 제수를 각각 준비, 주신으로

모신 신령에게 마을 전체와 개별 주민들을 위한 소지를 각각 올리면서 안녕과 풍요 기원, 제의 절차 중 잡귀를 위해주는 고수레를 산신제 또는 서낭제에서 각각 설행한다면 산신 또는 성황을 주신으로 모신 제의로 볼 수 있다.

마을에서 주신으로 모시는 신령이 변동되어도 준비한 제수는 돼지[또는 돼지머리] 1마리, 과일, 메, 감주, 북어포 등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인제지역 마을에서 주신으로 어떤 신령을 모시든 통돼지를 잡아서 올리는 사례들이 매우 많다. 통돼지를 올린 후 분육(分肉), 즉 마을 제의 비용을 희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돼지고기를 공평하게 나눈다는 것이 인제지역 마을제의를 운영하는 과정에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와 함께 북면 용대리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심마니'[수부와 구분되는] 등을 위한 별도의 제당 또는 신령 모심 형태가 나타난다. 이는 산삼을 비롯한 약재를 산에서 채취하는 심마니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고, 이들이 마을 산제당이나 서낭당에서 산에서의 안전과 산삼 채취 등을 위해 비손하는 사례가 많다는 데에 기인한다.

또한, '북면 용대2리 4,5,6반 산신제와 서낭제 → 기린면 서1리 3반 양지동 산신제와 서낭제 → 인제읍 가아1리(송정) 텃골 서낭제와 산신제 → 남면 수산리 샘말에서의 서낭제에 산신제가 합사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제지역에서 산신제 중심의 마을제의가 서낭제 중심으로 미세하게 변동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변동 양상은 마을이 처한 지형·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차이가 있다.

인제지역 마을제의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모시는 산신이 지닌 성격은 존재론 측면에서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신령-인간' 사이의 관계를 지위적 의미에 주목한 것이고(산신), 둘째는 '신령-인간'의 직접적인 관계와 감응을 중시하는 것이며(산령), 셋째는 세상과 인간의 연원이 되는 신화적 시조로서 시원적 계보를 보증하는 것이다(천왕). 기능론 입장에서 산신은 지리적 공간을 주재하며, 산령[산왕]은 길흉화복을 관장하고 영적 권능을 행사하며, 천왕은 시조와 후손과의 연결을 매개로 초월적 염원을 관장·총괄한다.

이와 같은 산신의 성격을 바탕으로, 인제지역 마을신앙 조사 자료들을 참고하여

인제지역 45개 마을에서 모신 신령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산신을 주신으로 모시는 유형에 속한 마을에서는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산신께 기원하면서 마을 주민들을 위한 축원도 산신에게 올린다.

둘째, 산신을 주신으로 모시고, 서낭을 하위 신령으로 모시는 유형에 속한 마을에서 산신은 산신과 산령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 마을 제의에서 主神으로 모시는 '산신'은 위에서 소개한 개별적인 의미를 지녔다기보다는 위의 2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지닌 신령으로 인식된다. 이에 비해 서낭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생활하는 공간 또는 마을 입구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신령으로 구분된다.

셋째, 산신과 서낭을 대등하게 모시는 유형에 속한 마을에서는 산신제와 서낭제의 제의 절차가 유사하다. 이 때 축원을 위해 모신 신령은 다르지만 산신제와 서낭제에서 마을 전체와 개별 주민들을 위한 소지를 각각 올리면서 안녕과 풍요를 기원한다.

넷째, 서낭[성황신]을 주신으로 모심에 따라 산신을 상당신 또는 터주로 모신 유형에 속한 마을에서 산신은 서낭제를 지낼 때 상당신으로 모셔지기에 표면적으로 지위적 의미를 지닌 산신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일부 사례에서 축원을 할 때 '산신령님'께 의탁하여 내재적으로는 山에 좌정하여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종교적 기능을 행사하는 '산령'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섯째, 서낭[성황신]이나 대왕을 마을제의의 주신으로 모신 유형에 속한 마을에도 마을을 보호하고, 내면적으로 제의 중에 산신 위함이 내재되어 있거나, 대왕을 주신으로 모실 경우 별도의 날짜를 정한 후 산신을 모셔서 해당 마을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한다.

각 유형별로 인제지역 마을에서 모시는 산신은 필자가 3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한 산신의 성격([표 1]) 중 일부 또는 3가지 성격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로 모시는 '산신'은 개별적인 의미를 지녔다기보다는 위의 3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지닌 신령으로 인식되어 모셔지는 사례들이 매우 많다.

향후 인제지역 마을제의와 주민들의 산신에 대한 인식, 변화 양상을 좀 더 치밀하게 조사하고, 이를 산신의 기본 성격에 대입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른 지역 마을의 사례들, 다른 시기의 사례들과의 비교를 통해 지역의 특성과 시대적 변화 양상을 읽어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인제지역 산신(제) 자체의 규명은 물론 산신(제) 일반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주제어: 인제, 산신, 천왕, 서낭, 산신제

투고일: 2019. 11. 04.	심사종료일: 2019. 11. 13.	게재확정일: 2019. 11. 20.

참고문헌

『三國史記』卷 32, 雜志 1
『三國史記』卷 45 列傳 5
『帝王韻紀』
『高麗史』
『新增東國輿地勝覽』 麟蹄縣

국립민속박물관(편), 『한국의 마을제당(강원도)』, 국립민속박물관, 1999.
김선일, 『인제 사람들의 마을신앙 2』, 인제문화원, 2010.
신종원(편), 『강원도 땅이름의 참모습』(조선지지자료 강원도편), 경인문화사, 2007.
이만철(편), 『내고장 인제, 마을제・인물・시조와 시』, 인제문화원, 1996.
————, 『인제민속사』, 인제문화원, 2000.
————,『인제군 유적·지명·전설』. 인제문화원. 2007.
이학주, 『인제 사람들의 마을신앙』, 인제문화원, 2009.
———, 『정자리 사람들』, 인제문화원, 2016.
———, 『하추리 사람들』, 인제문화원, 2017.
———, 『인제 민속놀이』, 인제문화원, 2018.
———, 『인제 사람들의 마을신앙 3』, 인제문화원, 2019.
인제군사편찬위원회(편), 『인제군사』, 인제군, 1996.
인제문화원(편), 『인제뗏목』, 2002.
최병헌, 『인제의 지명』, 인제문화원, 2011.
한글학회(편), 『한국 지명 총람』(강원편), 한글학회, 1967.

강원대 국어국문학과 학술조사반, 「강원도 인제군 학술답사 보고서」, 『강원문화연구』 9,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1989, 199~206.

권혁준, 「인제군 인물 설화에 나타난 역사성」, 『강원민속학』 20집, 강원도민속학회, 2006, 245~264쪽.

김도현,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122~138.

———, 「울진 12령 샛재[鳥嶺] 城隍祠와 褓負商團」, 『실천민속학』16집, 실천민속학회, 2010, 217~259.

———, 「한계산성 천제단의 형태와 성격」, 『한국성곽학보』23집, 한국성곽학회, 2013, 74~99쪽.

———, 「울진과 울릉도 공동체신앙의 관계성 검토」,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Ⅵ』, 영남대 독도연구소・울진군, 2015, 365~379.

———, 「태백산에서의 산신 신앙 전승과 변화」, 『아시아 강원민속학』 30집,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18, 7~59.

———, 「환웅신화에 보이는 天王의 성격」, 『《삼국유사의 세계》(최광식 교수 정년기념 논총)』, 세창출판사, 2018, 431~456.

———, 「신앙과 산림문화 -산에서 모시는 신령과 의례-」, 『세시풍속과 산림문화』, (사)숲과 문화연구회・산림청, 2018, 204~254.

———, 「《帝王韻紀》에 수록된 '天王'의 성격」, 『한국고대사 史料로서의 《帝王韻紀》』, 세창출판사, 2019, 151~185.

김정하, 「인제군 산신제의 시기 및 구성 원리 고찰」, 『강원민속학』 21집, 강원도민속학회, 2007, 145~166쪽.

김종대, 「강원도 영서지역의 마을 신앙에 대한 초고」, 『한국 민간신앙의 실체와 전승』, 민속원, 1999, 175~176.

남근우・박신정, 「인제군의 민속문화」(1).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림대학교 박물관·강원도·인제군. 1996, 92~109.

도도로키 히로시, 「"대동지지"에 나타난 '동남지평해삼대로(관동대로)'의 경로비정」, 『문화역사지리』 제14권 제 1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2, 91~96.

소재영, 「제상설화논고 - 호국문학의 한 패턴 정립을 위한 시론」, 『국문학연구』 53, 국어국문학회, 1971, 71~92쪽.

신종원, 「갑둔리 5층석탑 명문과 관련한 역사 해석의 문제」, 『인제 갑둔리 일대 석탑 조사 보고서』, 인제군・강원대박물관, 1996, 84쪽.

———, 「한국의 산악숭배와 고대의 삼각산」, 『북한산성 연구논문집』, 경기학연구센터, 2016, 129~178.

윤형준, 「김부리대왕동제의 신격과 역사적 인물의 수용」, 『인제문화』 10, 인제문화원, 1995, 50~76쪽.

이영식, 「강원도 홍천군 동면과 서석면 지역의 마을제의 변화양상」, 『東아시아古代學』 34호, 2014, 227~253쪽.

이학주, 「인제지역 마을제사의 활용방안과 과제」, 『인제 사람들의 마을신앙』, 인제문화원, 2009, 313~330쪽.

———, 「김부대왕제 연구」, 『동아시아고대학』 제25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1, 137~161쪽.

———, 「정자리를 통해 본 민속신앙의 존속과 변천」, 『인제 사람들의 마을신앙 3』, 인제문화원, 2019, 247~268쪽.

전신재, 「김부대왕 전설의 형성과 변모」, 『강원민속학』 19집, 강원도민속학회, 2005, 50~90쪽.

정승모, 「중양절」, 『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06.

최인학, 「삼짇날」, 『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05.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Mountain god in the Village of Inje, Gangwon-do

Kim, Do-Hyeon*

According to an analysis of the site of the village ritual in Inje, many villages hold village rituals centered on rituals for the mountain god(山神祭 ; *Sansinje*). In addition, there is a case where people hold rituals for the city god(城隍祭 ; *Seonghwangje*), calling it rituals for the mountain god, and they hold both of them together. Though it is called the "rituals for city god", there are also examples of praying for the elements that people actually pray to the guardian god of a mountain. This shows that the mountain god[the guardian god of a mountain] was the principal god enshrined in the village rituals in Inje.

The spirits enshrined along with the guardian god of a mountain(*Sansin*) in the village ritual in Inje area include city god(*Seonghwang*), god of governing several villages in the mountains(*Guksa or Guksu*), a spirit roaming the streets(*Georisin*), the great king(*Daewang*), a person who is good for the gods(*Subu*), and miscellaneous ghosts and spirits(*Japguejapsin*), and so on. Among these deities, the ones that are enshrined as the main gods and in charge of the celebration are the mountain

* The cultural property expert committee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god and the city god.

Also, various examples show that the village rituals of Inje area which were centered on rituals for the mountain god shifts slightly to rituals for the city god. Such changes result in some differences made by geographical, social, and economic factors that a village faces.

On the ba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guardian god of a mountain, we can classify five types of deities people enshrine, especially focusing on the ones in 45 villages in Inje area.: enshrining mountain gods as the main one, enshrining city gods as the lower spirits, enshrining mountain gods(*Sanryeong*) and city gods equally, enshrining village gods as upper-shrines or ground gods, etc.

Each type of mountain gods enshrined in the villages of Inje implies some or all of the three characteristics introduced earlier.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various forms of 'mountain god' are recognized as gods with a combination of the above three meanings rather than individual ones.

Key Words: Inje, Guardian god of a mountain(山神), Mountain god(山靈), Mythical ancestor(天王), City god(城隍), Rituals for mountain god(山神祭)